

FENDI
TIMEPIECES



**Punctually
Unpredictable**

SELLERIA
Hand-crafted interchangeable straps.

펜디 워치는 전국 유명 백화점 내 갤러리클락 매장 및 펜디 부티크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080 3284 1300 FENDI.COM/TIMEPIECES

Style

조선일보

DECEMBER 2016
vol.1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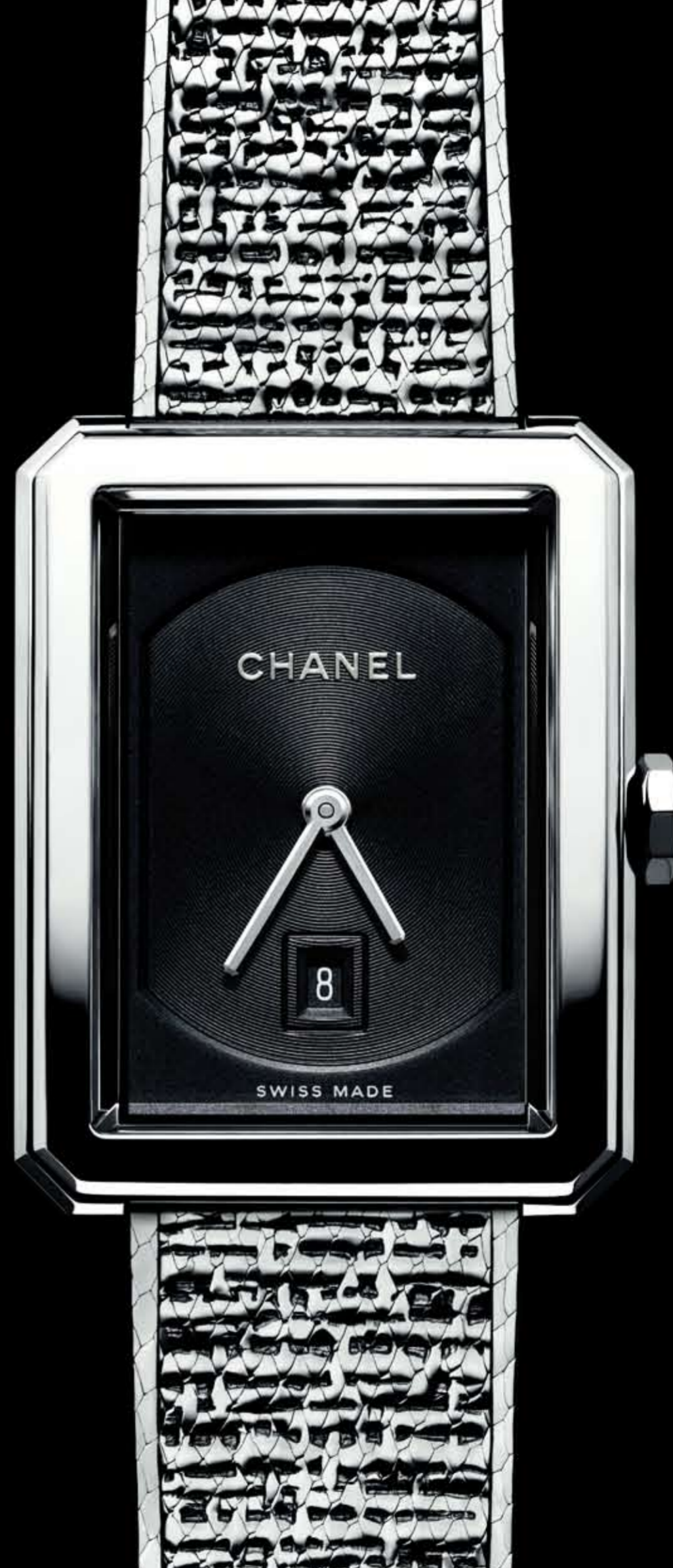


TIFFANY & Co.

NEW YORK SINCE 1837



CHANEL.COM



L'INSTANT
CHANEL

BOY-FRIEND
TWEED



BVLGARI
ROMA

SERPENTI

**MONT
BLANC** 



Pioneering since 1906. For the pioneer in you.

1906년부터 이어온 개척 정신,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대항해 시대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한 몽블랑 4810 크로노그래프 오토매틱은 탐험하듯 열정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스위스 파인 워치 메이킹의 정확성과 정제된 아름다움을 선사합니다.

montblanc.com/pioneering
Crafted for New Heigh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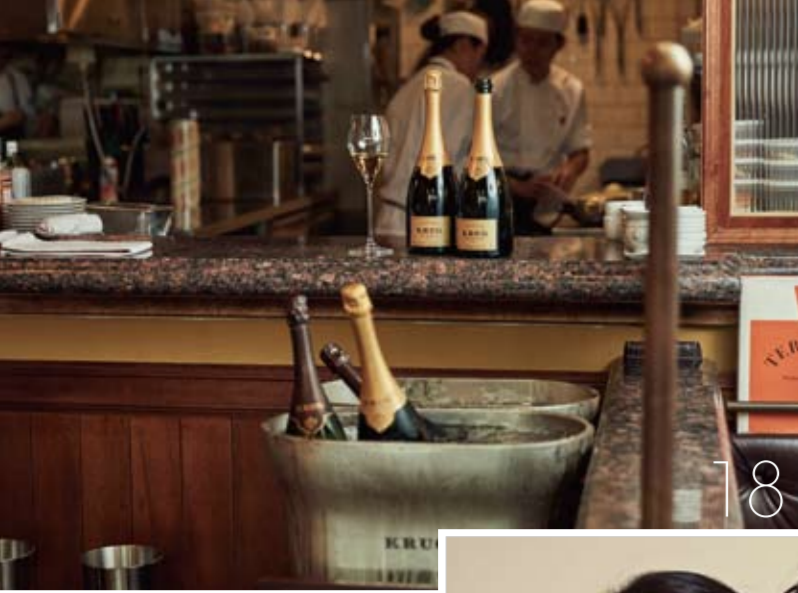


BURBERRY

London, England

THE RUCKSACK

버버리에서 럭셔리 모노그램을 담아보세요
BURBERRY.COM



18

40



표지에 등장한 주얼리는 티파니의 아이코닉한 키 컬렉션. 행운을 가져다주는 열쇠, 무한한 가능성의 문을 여는 열쇠 등 밝은 미래를 향한 긍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 출시 이후 꾸준히 사랑받아왔다. 시즌에 등장한 빅토리 키 컬렉션의 꽃잎을 형상화한 마키즈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기품 있는 분위기를 연출한다. 문의 02-547-9488



30



24

- 18 **MAGGIE HENRIQUEZ** 희소한 기질을 자랑하는 스페인 브랜드 크루그(Krug)를 7년간 이끌어온 매기 엔리케즈는 감성적이고 창의적인 '소프트 리더십'을 보여주는 좋은 예다. 정통성을 다지면서도 슬기롭게 혁신을 일궈낸 그의 리브랜딩 스토리를 직접 들어봤다.
- 20 **THE FASHION** 스타일리시한 여성의 마음을 사로잡는 실용적인 룩과 감성적인 패션 액세서리.
- 22 **THE FASHION** 클래식한 스타일은 물론 개성넘치는 스타일도 쿨하게 즐길 줄 아는 멋진 남성을 위한 기프트 셀렉션.
- 24 **THE LIVING** 가족과 친구, 연인을 위한 선물이 고민이라면? 여기, 받는 이의 다양한 취향을 고려한 센스 있는 리빙 아이템을 눈여겨보자.
- 26 **THE BEAUTY** 부모님을 위한 프레스티지 라인부터 브랜드 베스트셀러 아이템과 시그니처 향수, 그리고 시즌 한정 컬러와 특별한 패키지로 선보이는 홀리데이 에디션까지, 감사의 마음을 고이 전달해줄 뷰티 셀렉션.
- 28 **THE JEWEL** 한 해 동안 뜻깊고 값진 시간을 함께 보낸 소중한 이에게 전하는, 눈부시게 반짝이는 아름다움과 실용성을 겸비한 주얼리 & 워치 기프트 컬렉션.
- 30 **THE COUPLE** 그 여자, 그리고 그 남자. 함께하는 시간을 더욱 스타일리시하게 만들어줄 12월의 커플 룩 제안.
- 38 **UNSURPASSED ELEGANCE** 시선을 사로잡는 비주얼에 뛰어난 완성도까지 담았다면 하이엔드로서의 기량은 충분하다. 오직 여성들을 위한 기계식 시계의 비전을 선보인 리처드 밀 RM 037 시리즈, 그 화려하고 견고한 세계로의 초대.
- 39 **WARM & GLAM** 시크한 뉴욕의 감성을 전하는 맥케이지(Mackage)에서 선보이는 럭셔리하고 따뜻한 윈터 아우터.
- 40 **MAGIC OF THE JEWEL** 까르띠에의 마지매양 하이 주얼리 컬렉션(Magicien High Jewelry Collection)을 본 순간, 누구나 주얼리의 마법에 사로잡힐 것이다.
- 41 **C'EST NOËL** 2006년부터 매년 브랜드 시그니처 피케 폴로 셔츠를 아티스트들과의 협업을 통해 공개하는 라코스테가 이번엔 세계적인 프렌치 비주얼 아티스트 장 폴 구드와 손잡았다.
- 42 **A PASSION FOR GOLD** 이번 크리스마스를 위해 보석만큼이나 빛나고 아름다운 컬렉션을 소개한다. 바로 구스타프 클림트의 작품, 황금 시대에서 영감을 받아, 델보만의 유연한 해석을 발휘한 푸시에르 데투알(Poussière d'étoiles) 컬렉션이 그것.
- 44 **OIL, AGAIN** 아직도 페이스 오일을 사용하가 망설여지거나, 그 어떤 크림을 발라도 건조함이 해결되지 않는 피부가 고민이라면 멀티 페이스 오일에 주목할 것.
- 51 **MIRACLE ESSENCE** 한국인 피부에 대한 오랜 연구와 독보적 기술력과 노화에 대한 깊은 고민으로 완성한, 차분한정품의 프레스티지 브랜드 CNP Rx의 피부 전문가가 내린 솔루션.
- 52 **EDITOR'S PICK** (스타일 조선일보) 에디터들의 홀리데이 뷰티 리스트.
- 53 **IDEAL MOISTURE** 24년간 단 한 번도 리뉴얼하지 않고도 브랜드를 대표하는 제품으로 큰 사랑을 받는 자력을 지닌, 기초 관리를 위한 퍼스트 에센스, '데코르테 모이스처 리포스'.

Style 조선일보

Issue.150 December 2016

대표 | 방정오 cbang@chosun.com 이사 | 이석기 stonelee@chosun.com
 편집장 | 김유미 ymkim@chosun.com 피처 디렉터 | 고성연 amazingk@chosun.com
 패션 - 뷰티 디렉터 | 배미진 mijin@chosun.com 에디터 | 권유진 yjkwon@chosun.com
 에디터 | 이지연 easyear@chosun.com 아트 디렉터 | 이은옥 okida0820@naver.com
 교열 | 이정현 어시스턴트 | 김수민 권고 - 마케팅 | 박영하 yhpark@chosun.com
 김준석 adjoons@chosun.com 박승현 shpark@chosun.com 재무 | 이민희 mhlee@chosun.com
 분해 - 재판 | 새빛 그래픽스 인쇄 | 타라티피에스 발행처 (주)스타일조선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413
 현대 하이패리는 비즈니스센터 110호 기사 문의 02-793-5330 광고 문의 02-793-5339

매월 첫째 주 수요일에 발행하며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목동, 여의도, 한남동, 동부이촌동, 평창동, 성북동, 경기도 성남 분당구, 부산 해운대구, 수원, 동래구, 남구, 연제구, 대구 수성구의 조선일보 구독자에게 배달됩니다.

* 3·4·9·10월은 셋째 주 수요일에 각주로 두 번 발행됩니다.
 * 수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발행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스페셜 에디션은 임의로 발행됩니다.



stylechosun.com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는 풍성한 선물 이벤트를, 실질적인 정보의 리서치 브랜드 갤러리, 품격 있는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고 지원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하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과월호를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구독할 수 있는 'E-magazine'이 여러분과 (스타일 조선일보)를 더욱 가깝게 만들어드립니다. 럭셔리 그 이상의 감각과 품격이 함께하는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 지금 바로 방문해주세요. stylechosun.com



The Spirit of Travel

LOUIS VUITTON

louisvuitton.com

Jewel UNIQUE SHAPES

고귀한 원석은 형태를 아름답게
가공하는 것만으로도 가치가 높아진다.
아름다운 유니크 셰이프 주얼리 컬렉션.

(왼쪽 위부터 시계 반대 방향으로) 정제된 우아함을 담고 있는 에메랄드 컷 다이아몬드와 카보숩 컷 레드 루비의 조화가 강렬한 그래픽 컬렉션 링 가격 미정 **불가리아**, 클래식한 에메랄드 컷 링 1천만원대, 에메랄드 컷으로 세팅한 솔라스트 에메랄드 컷 링 6천만원대, 쿠션 컷으로 세팅한 옐로 다이아몬드 링 2천만원대 모두 **타미나**, 클래식한 소재에 스퀘어 에메랄드 컷 다이아몬드를 품격 있게 세팅한 그래픽 솔라티어 링 가격 미정, 유색 보석을 러운드, 드롭, 오벌, 직사각형 등 각기 다른 모양으로 세팅한 일레그라 이어링 1천만원대 모두 **불가리아**, 에디터 **베버린**



Beauty CLICK & BEAUTY!

SNS 열풍과 함께 온라인으로 유통되는 뷰티 브랜드들이 호황을 이루고 있다. 유명 채널을 간소화한 만큼 혁신 가격에 백화점 브랜드 못지않은 고품질 제품을 온라인에서 골라 한 번으로 구매할 수 있다. 여기,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 뷰티 브랜드를 엄선했으며 지금 바로 접속할 것! 방부제, 색소 등 유해한 성분은 일절 함유하지 않은 천연 화장품을 선보이는 **스킨파크**(www.skinpark.kr)는 이미 온라인 뷰티 마켓에서 8년간 오로지 입소문만으로 승승장구한 브랜드다. 전통 방식으로 생산한 누룩 가루부터 국산 재료만 사용한 한방 가루 등의 천연 팩이 시그니처 아이템으로, 이와 함께 수직적으로 만드는 천연 비누, 천연 원료를 베이스로 한 스킨케어, 보디·케어 제품까지 토털 뷰티 라인을 선보인다. 안전화 원료만 담아 트라클 패우, 민감성 패우 케어에 지부심을 가질 만큼 생분, 향, 텍스처 등 모든 면에서 순한 것이 특성이나 문제성 피부로 고민하고 있다면 스킨파크의 문을 두드려볼 것. **멜라주**(www.mywellage.com)는 보톡스와 필러로 유명한 휴켄피어에서 선보이는 인타이징 전문 브랜드로, 피부 미용 성형 외과와 명문대 박사진의 오랜 임상 노하우를 접목한 화장품이라는 점에서 믿음이 된다. 헬라주의 대표 제품인 비타인팩션 마스크는 사용 직전에 정해진 순수 가루 형태의 비타인올을 담은 주사기, 시트 마스크에 공액을 주입해 사용하는 방식이 독특하다. 한 번의 사용으로도 안색 개선은 물론 보습, 인타이징 효과를 특별히 볼 수 있으니 비싼 현대인에게 안성맞춤이다. 뉴욕에서 탄생한 시뮬성 화장품 브랜드 **인디리**(www.indielee.co.kr)는 국내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시작으로 프로젝트 루, 비이커 등의 편집 숍에 입점하는 등 온라인 유통을 발전 시키고 온라인으로 화장품 성공한 케이스. 동물 실험을 반대하고 유해 성분은 배제한 친환경 코즈메틱만 선보인다. 100% 순수를 기반으로 추출한 스쿠알렌 페이스 오일이 베이스로, 미국 내 수입은 매체가 극한했음에도 불구하고 모공을 막지 않고 피부 트러블 개선에 빠른 효능을 발휘하는 것이 특징이다. **헉슬리**(www.huxley.co.kr)는 SNS 속 스타 화장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SNS에서 유행세를 탄 브랜드 중 하나다. 그만큼 요즘 트렌드인 군더더기 없는 심플한 패키지와 기본에 충실한 스킨케어 제품들이 단연 돋보이는데, 이는 일교차가 50°C인 극한 환경에서 생존하는 사하라 선인장 시드 오일을 주성분으로 해 메마른 피부에 수분과 영양을 공급하는 효과가 탁월하다.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불라주** 비타 레드 인팩션 마스크 5개입 2만2천원대, **멜라주** 비타 블루 인팩션 마스크 5개입 2만2천원대, **헉슬리** 오일 라이드 앤 모어 30ml 4만9천원, **헉슬리** 오일 에센스 에센스리크 오일리크 30ml 4만3천원, **인디리** 스쿠알렌 페이스 오일 30ml 4만9천원, **스킨파크** 블랙슈가 세럼 120ml 2만9천원, **인디리** 코큐텐 토너 118ml 4만7천원, **스킨파크** 화이트닝 크림 50ml 6만9천원, 에디터 권유진

Fashion IT'S SNOW TIME

런웨이 위에서 불변의 룩을 슬로프 위에서도 만나볼 수 있다. 스키를 탈 때도 스타일을 유지하게 해줄, 패션 브랜드에서 선보이는 스키 아이템.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스키 탈 때는 물론, 에디터 스키 룩에도 손색없는 버건디 컬러 바니 20만원대, 화이트 색상의 헤이랜드 가격 미정 모두 **퓨전**, 방수 기능한 소재로 제작한 퍼 트러닝 방한 부츠 22만원대 **문부츠 by 네타포르테**, 블랙과 화이트의 컬러 플레이 문부츠는 스키 고급 38만원대 **팬디 by 네타포르테**, 테디 베어와 같은 복슬복슬한 털이 매력적인 스키 장갑 가격 미정 **몽클레르**, 에디터 **이재현**



INSIGHT

편집부가 엄선한, 국내 및 해외에서 각광받는 이들의 최신 트렌드 & 주목할 만한 소식들.

Drinks 연말연시 분위기에 품격을 더하는 프리미엄 주류

다채로운 행사가 많은 연말연시를 겨냥해 올해도 프리미엄 주류의 세상은 심 없이 돌아가고 있다. 스즈 한 지인들과 시간을 보내는 데 좋은 동반자가 될 만한, 오감을 자극하는 제품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모엣&상동은 연말을 맞아 리미티드 에디션 버스팅 버블(Bursting Bubble) 기프트 패키지를 선보였다. 3D 렌즈를 활용한 화려한 패키지 디자인이 눈에 띄며, 인페리얼과 로제 인페리얼, 두 종류가 있다. 스티다셀러도 혼자만 연말연시인 만큼 특별한 스토리를 머금은 프라스티지 샴페인을 원한다면 '자연에 대한 찬가'라는 수식어를 단 '크루그 2002' 나 2차 절정기를 맞이해 '에너지의 정점을 느낄 수 있는 '동 페라노 P2 1998 빈티지 같은 빈티지 샴페인도 주목할 만 하다. 크루그 2002는 심사위원들도 카리스마 넘치는 조화로움이 오감을 충족시키며, 극한의 기후를 극복해낸 서역 설적인 매력을 담겨 있다. P2 1998은 긴장감 어린 개성을 뽐내며, 케이트 미들턴과 윌리엄 왕자의 결혼식 연회에 사용됐다는 프라스티지 샴페인 '볼렌저 스페셜 쿠베 브뤼노 샴페인' 애호가라면 관심을 기울일 만하다. 블렌디드 위스키를 사랑하는 이들이라면 발렌타인 21년 아메리칸 오크를 눈여겨볼 듯하다. 아메리칸 오크 특유의 부드럽고 품격 있는 향미가 유혹적이다. 풍부한 오렌지와 따뜻한 생강 향을 결집한 바닐라 퍼자의 조합에 과일 향과 오크 향의 바닐라가 어우러지며, 꿀처럼 달콤한 끝 맛이 더해진다. 발렌타인 21년 아메리칸 오크는 11월부터 전 세계 면세점에서만 구매 가능하며, 한국에서는 12월까지 인천과 제주 국제공항에 체험관을 마련한다. 싱글몰트 위스키를 즐기는 '혼술 족'이라면 최근 선보인 하일랜드 파크 12년의 350ml 버전을 반길 듯하다. 기존 700ml의 절반 크기로 양중맞은 디자인이 눈길을 잡아끈다. 스코틀랜드 오크나 섬의 증류소에서 1789년부터 전통적인 위스키 생산 방식을 고수해온 유서 깊은 브랜드로, 그윽한 피트 향과 발효 향, 진한 디코 초콜릿 향의 조화가 일품이다. 에디터 **고성현**



Focus 기구 디자인의 리더 B&B 이탈리아, 50돌을 맞아다

올해 인테리어나 디자인 세상에서는 글로벌 기업 B&B 이탈리아가 탄생 50주년을 맞은 것이 줄곧 화제가거리로 부각됐다. 칸텔라리리 기구 디자인 브랜드 B&B 이탈리아가 진출한 세계 여러 도시에서 다양한 행사가 열리면서 이탈리아 디자인업계의 리더로서 큰 자취를 남기는 특유의 혁신적인 DNA가 다시금 주목받았기 때문이다. 1968년 이탈리아 기구가 피에로 임브로지오 부스넬리가 설립한 이 브랜드는 모던한 세련미와 창의적인 기술 혁신으로 글로벌 트렌드를 이끌어온 대표 주자로, 지구촌 곳곳에 40개 단독 브랜드 스토어와 8백 개가 넘는 쇼룸을 개조하고 있다. 이 브랜드를 상징하는 존재인 안 토니오 차펠라리오를 비롯해 지금은 고인이 된 건축가이자 디자이너 자하 하디드, 인테리어나 디자인업계의 여왕 파르티시아 우르키올라, 영국의 스타 듀오 바버 & 오스카비 등 내로라하는 크리에이티브들과 탄탄한 유대 관계 속에서 창의적인 협업을 펼쳐오고 있다. 1989년에는 특정 품목이 아닌 브랜드 차원에서 세계적인 권위의 디자인상 '칼로 콤파스(Compass d'Oro)'를 받기도 했다. 올해 B&B 이탈리아에서는 지난 50년의 빛나는 행보를 입증적으로 담은 다크 영화 <향의 시, 디자인과 산업의 조우—Poetry in the Shape When Design Meets Industry>를 제작해 선보였다. 1960년대 말 풍선 같은 구조의 플라우러탄 소재 의자로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킨 가예타노 페체의 '업(UP)', 1970년대 이탈리아 주거 문화를 대표하는 아이콘이었던 미리오 벨리니의 '로 밤볼라(Le Bombole)' 같은 명작들의 역사도 함께 들여다볼 수 있다. 한국에서도 B&B 이탈리아 매장이 있는 서울 창동동 인피니(Infini)에서 열린 탄생 50주년 행사에서 VIP 고객과 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이 영화를 상영했다. 에디터 **고성현**



THE PRINCESS BUTTERFLY
SECRET WATCH

G R A F F

THE MOST FABULOUS JEWELS IN THE WORLD

THE SHILLA SEOUL +82 2 2256 6810

GRAFFDIAMONDS.COM



앞으로 신해나 파운
베르나 베르나
바르나 베르나
2백만원 이하로 by
아이템리퍼

패들룩 모티브의
아이템 50만원대
룩이 비쌌.

연말 모티브의 자개
다이얼이 은은하게
빛나는 제트마스터
오픈 하트 레이디
1백37만원 해밀턴.

형형색색의 플라워 모티브가 돋보이는 폭스 퍼 재킷 1천40만원 썬디.

핑크 글리터
장식이 인상적인
선글라스 40만5천원
지미루 by 사밀로.

전혀 남다른
스타일링을
유감 없이
이루어준
아이템리퍼

상동라에를
연상시키는 화려한
드롭 이어링 63만원
시몬 로사 by 썬디.

강렬한 레드 컬러의
레이디 퍼 이어링
1백50만원 MCM.

고양이인 아홉다음이
황금색 브레이슬릿
가르 미팅
디스네이로.

포말한 코트 위에도,
드레시한 파티 룩에도
두루 어울릴 퍼 넥 워머
2백28만원 몽클레르.

스팽글 장식으로 하트모티프를 채워 패용을
완성한 클라치. 18x13cm. 2백40만원대 로저 비비에

이제부터부터를 단정하게
켄달 150만원 이하로 by
아이템리퍼

for her
Selection

연말 지인들과의 특별한 모임에서 당신을 가장 돋보이게 해줄
아이템만 모았다. 단 하나만으로도 파티 스타일링에 힘을
실어줄 화려한 셀렉션. *photographed by kim do hyun*

크리스탈 주얼 장식 레이어
모티브는 세련된 핑크 컬러
2백만원대 마블로 블라니.

은은한 플로럴 자수가 놓인 자카드
하이힐 가격 미정 마무마무.

시원스로운 리본 디테일의
컬러 코트 3백70만원대
아이템리퍼

- 구찌 1577-1921
- 해밀턴 02-3149-9593
- 루이 비통 02-3432-1854
- 썬디 02-2056-9023
- 지갑바티스타 빌리 02-6905-3357
- 아무아 디 파르마 02-517-5218
- 아이템리퍼 02-6905-3964
- 디스네이로 02-3445-3107
- 마블로 블라니 02-3443-2113
- 사밀로 02-514-9006
- 몽클레르 02-514-0900
- 분더산 02-2056-1234
- 마무마무 02-3218-5331
- MCM 02-540-1404
- 로저 비비에 02-6905-3370



캘리리아 East 북대서양누에 월드타워점 신세계 강남점 신세계 센텀시티 신세계 스타필드 허남점 현대 무역센터점 현대 무역점 현대 무역점



for him Selection

평소 시도해보지 못한 과감한 컬러와 디자인에 마음이 가는 홀리데이 시즌. 레드 컬러를 포인트로 이룬 시즌 트렌드인 벨벳 소재까지 다양하게 골라봤다. *photographed by yum jung hoon*

가운뎃손가락 장식용 링까지 30x25cm, 1백만원 미만.
 특별 한정판 에디션 2016년 12월 25일까지 2016년 12월 25일까지 2016년 12월 25일까지

패턴이 독특한 프라임이 문방이는 신라스 60만원대 디타 by 나스월드

브렌드 로고를 패턴화한 가죽에 컬러 패턴으로 포인트를 준 클러치 30x25cm, 1백만원대 디올 울모

블랙 글러워의 지퍼 디테일이 조화로운 더블 문크 스트랩 슈즈 1백60만원대 슈에에 자스티 by 분다삼

블랙과 그레이 색상의 스텔라 장아롱 실드보이 2만원대 풀채권가버나

클로버 모티브의 부토니에 69만원 풀채권가버나

특별한 자리를 위한 액세서리로 제작인 스트라이프 패턴의 부토니에 25만원 황방 울모

하나의 디자인에 시간과 노력을 일컫는 여러 개의 인디케이터를 탑재한 현대적인 디자인의 블루나 위치 1백46만원 미도

매시던 가죽 리미터 자켓에 패치까지 많은 중앙 장식 벨트 2만원대 풀채권가버나

은은하게 빛나는 스타트 장식의 지갑 70만원대 크리스찬 루부탱 by 분다삼

화려한 플리워 패턴의 더블 문크 스트랩 슈즈 1백22만원 구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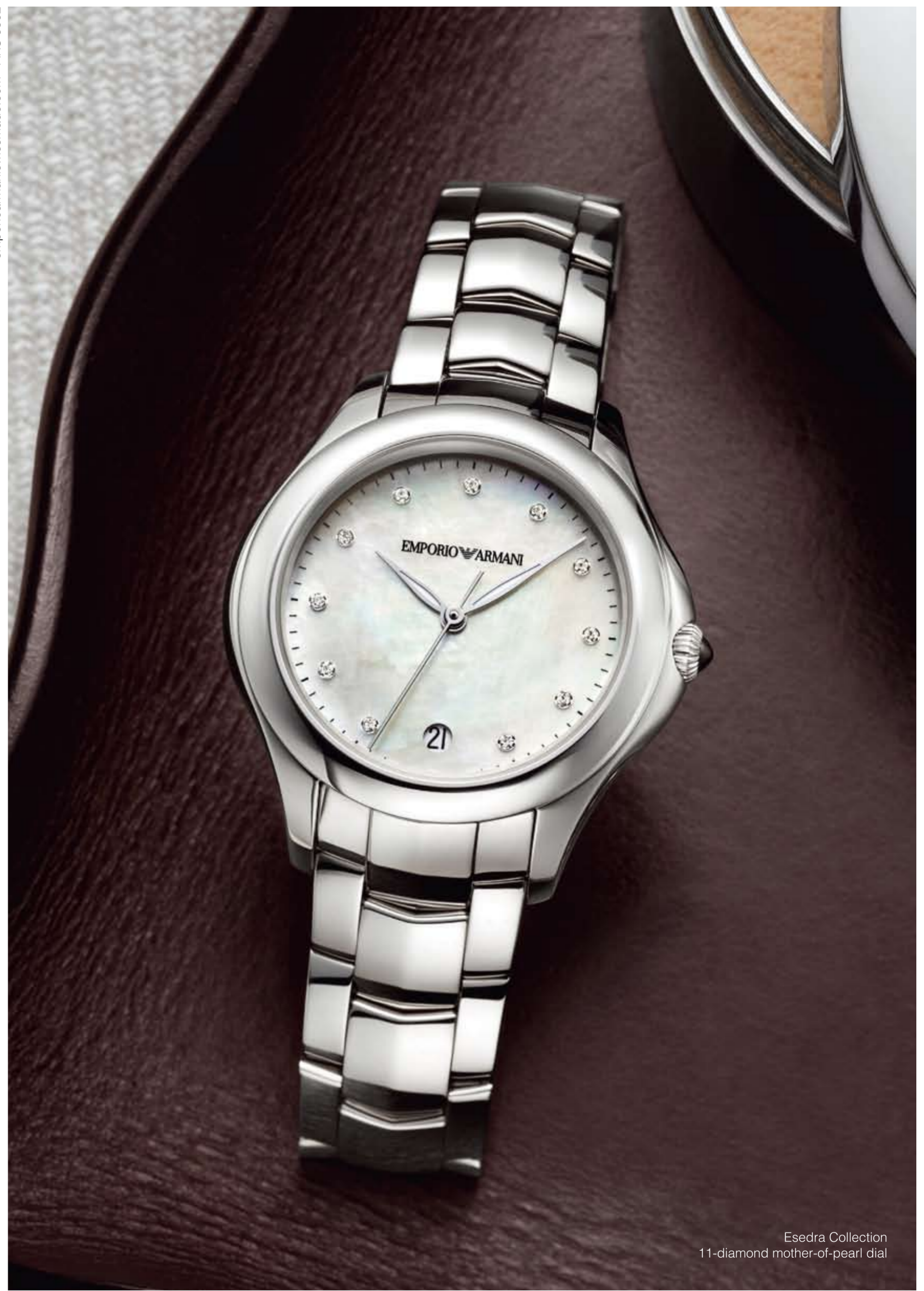
벨 모티브로 장식한 에르메즈 루즈 앤 노와 고할 안장벨 1백만원 황방 울모

세피아색 옹골창 아스틴트 마세렐, 갈스비 에디터 마세렐

- 구찌 1577-1921
- 미도 02-3149-9599
- 발렌티노 02-6905-3610
- 나스월드 02-512-2225
- 풀채권가버나 02-3444-0077
- 황방 울모 02-6905-3496
- 디올 울모 02-02-3480-0104
- 몽블랑 1670-4810
- 필립 플러인 02-544-9132
- 펜디 02-2056-9022
- 모엣&상통 02-2188-5100
- 아이벌로아 02-6905-3964
- 분다삼 02-3444-3300
- 루이 비통 02-3432-1854
- 버버리 080-700-8800

러플 디테일의 스트라이프 셔츠 73만원, 피자더 셔츠 가격 미정, 로맨틱한 핑크 컬러 벨벳 재킷 가격 미정 모두 버버리

emporioarmaniswissmade.com - AFS 8502



Esedra Collection 11-diamond mother-of-pearl dial

EMPORIO ARMANI
 SWISS MADE
 DESIGNED IN MILAN. CRAFTED IN SWITZERLAND



The Women Who Inspire Us_ *interview 05*

Maggie Henríquez

프레스티지 샴페인 하우스에 날개를 단 전문 경영인

알파 우먼이 득세하는 시대라고는 하지만 아직은 경영 현장에서 활약하는 여성 사령탑의 숫자가 턱없이 적다. 경영지 <하버드비즈니스리뷰(HBR)>에서 시가총액 상위 기업을 대상으로 선정하는 '세계 100대 CEO' 목록만 봐도 여성 경영자는 드물다. 하지만 요즘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더 체계적이고 감성 지수도 높기에 리더 자질이 뛰어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는 있다. 희소한 가치를 자랑하는 샴페인 브랜드 크루그(Krug)를 7년간 이끌어난 매기 엔리케즈는 감성적이고 창의적인 '소프트 리더십'을 보여주는 좋은 예다. 정통성을 다지면서도 슬기롭게 혁신을 일궈낸 그의 리브랜딩 스토리를 직접 들어봤다.



비즈니스를 성공적으로 이끈 경험을 바탕으로 2009년 와인의 본고장인 프랑스로 진출했고, LVMH 그룹이 그보다 10년 전인 1999년 인수한 이 전설적인 샴페인 브랜드를 이끌게 됐지만, 당시 크루그는 가파른 마이너스 성장 곡선을 그리면서 고전하고 있었다. 외환 위기도 악영향을 끼쳤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보수적이고 낡은 브랜드 이미지에 있었다. 전통이 고루함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크루그는 브랜드 정체성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소비자와 소통하지 못했기에 특유의 매력은 빛이 바랬다. 정든 지역을 떠나 유럽으로 간 그가 크루그 최고경영자(CEO)로 취임한 지 1년 동안, 자신에게 주어진 구원투수 역할을 잘해내려고 고군분투했지만, 단기간에 진전을 이뤄내기는 만만치가 않았다. 아니, 오히려 그는 "평생 그런 최악의 성과를 내본 적이 없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심하게 해냈다. 실제로 첫 해 성적은 고파에서 D를 받을 정도로 형편없었다. "와인과 식품업계 경력이 있던 것지만 전 대중적인 소비자 영역의 전문가였어요. 제가 알고 있는 걸 적용하려 했지만 효과가 없었죠. 낭패감이 큰 건 사실이었지만 배움도 컸어요. '럭셔리'는 전혀 다른 이해와 접근 방식, 그리고 소통 방식이 필요한 영역이라는 점을 뼈저리게 깨닫게 됐죠." 그는 다시 발동을 걸었다. 문제의 근원을 제대로 파악하고 대처하면 위기는 때로 기회의 원천이 될 수 있다는 진리를 이미 체득한 터라 두려워하지 않았다.

창업자의 일기장에서 받은 영감, 극적인 전환을 일궈내다
오랜 역사와 남다른 품격을 갖춘 브랜드가 으레 그렇듯이 진정한 럭셔리리의 정수는 창업자가 지닌 철학에 있다. 매기 엔리케즈는 크루그 고유의 정체성을 자들적으로 탐색하다가 브랜드 창시자인 조셉 크루그가 남긴 일기장에 뜻하게 됐다. 그의 철학과 비전이 오히려 담긴 이 검붉은 체리빛 노트는 6대째 내려오면서도 나무 상자 안에 갇혀 있다가 세상 밖으로 나온 것이다. 이때가 2010년 봄. 매기는 비전으로 가득찬 이 일기장을 읽다가 전율이 일 정도의 깨달음과 영감을 얻었다. 조셉 크루그는 독특하게 원대한 비전을 품고 있었는데, 그것은 최고의 테루아(terroir, 지리, 기후, 포도 재배법 등 와인용 포도를 재배하기 위한 전반적인 환경)



서 '창조'되는 최상급 샴페인을 뜻하는 프레스티지 퀴베(Prestige Cuvée)만 고집되 작황이 좋은 연도만이 아니라 '해마다 만들어내는 것이었다. 대개 '프레스티지 퀴베'라고 하면 특정 연도만 포도로만 빚어낸 '빈티지(vintage) 샴페인'을 연상하기 마련이다. 기준은 제조사마다 다소 달라질 수 있지만, 아무래도 좋은 해를 고르자면 매년 생산할 수 없기에 최상급 빈티지 샴페인의 공급은 제한될 수밖에 없고, 귀한 만큼 몸값이 높은 경우가 많다. 이에 반해 각기 다른 해에 만든 와인으로 블렌딩해 매년 똑같은 맛으로 만드는 '논빈티지(non-vintage) 샴페인'은 전체 시장의 80% 비중을 차지하는 흔하디흔한 제품이다. 그런데 조셉 크루그는 왜 최상급 샴페인을 얻으려면 수년을 기다려야만 할까? 해마다 프레스티지 퀴베급 샴페인을 내놓는 건 불가능할까?라는 의문을 품었고, 그 생각을 일기장에 담았다. 매년 생산되는 논빈티지 샴페인이기는 하지만 결코 흔치 않은 최상급 샴페인이라는 독특한 면모를 지닌 '크루그 그랑 퀴베(Krug Grande Cuvée)'는 그렇게 탄생했다. 10여 가지 빈티지에서 나온 1백20여 가지 베이스 와인을 블렌딩한 다음 6년 이상 숙성시키는 '작품'으로, 한 병을 완성하는 데 무려 20년이 넘는 시간이 걸린다고. "보통 논빈티지 샴페인이라고 하면 그저 신제품이 이전의 제품을 대체하는 식으로 만들어지고 유통된다고 여겨지죠. 하지만 매년 기후에 상관없이 한결같이 품질이 뛰어난, 우리가 '완대하다'고 표현하는 최상의 샴페인을 탄생시키는 크루그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한 해만으로는 '베스트'를 구성할 모든 품미와 향을 모을 수 없기에 '계획적으로 (by design) 만들어진 논빈티지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전까지 다른 논빈티지와 별다른 게 없는 방식으로 소통을 해왔던 거죠." 이런 배경에서 이제 크루그는 그랑 퀴베에 매년 '재창조(re-created)'되는 멀티 빈티지(multi-vintage)라는 표현을 쓰기도 한다. 물론 크루그 하우스에는 빈티지 샴페인도 있다. 흥미로운 한 해의 스토리와 특징적인 캐릭터를 담아낸, 환경에 따라 창조되는 프레스티지 샴페인 크루그 빈티지(Krug Vintage)다. 예컨대 환상적인 날씨 속에서 태어난 '크루그 2002'는 자연에 대한 찬가, 몸 시도 무뎠던 기후 속에서 꽃피운 '크루그 2003'은 '생기 넘치는 빛'이라는 수식어를 각각 달고 있다. 이렇듯 매년 재창조되는 최

상의 멀티 빈티지 샴페인과 특정 해의 스토리를 표현한 빈티지 샴페인의 구성 역시 일기장에 수 놓인 창업자의 비전이었다. "좋은 샴페인 하우스는 품질이 동일한 두 종류의 샴페인만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크루그 그랑 퀴베는 '넘버 1(n°1)', 크루그 빈티지는 '넘버 2(n°2)'라고 불린다.



단단한 정체성 위에 쌓아기는 크고 작은 혁신의 행보
세상에 물도 없는 근사한 샴페인에 대한 창업자의 집착을 바탕으로 한 개척 정신. 매기 엔리케즈는 다른 어느 브랜드도 모방할 수 없는 크루그만의 본질을 꿰뚫은 뒤에는 그 유일무이한 가치를 소비자가 더 잘 이해하고 즐길 수 있는 방식을 개발하는 데 집중했다. 한마디로 스토리텔링 방식을 혁신한 셈이다. 대표적인 성과가 2011년 9월 도입한 '크루그 ID'. 이때부터 모든 크루그 샴페인 보틀의 뒷면에 있는 레이블에는 6자리 숫자로 된 ID가 부여되고, 이를 모바일 앱이나 웹사이트(krug.com)를 통해 입력하면 해당 샴페인의 이보저모를 파악할 수 있다. 예컨대 크루그 그랑 퀴베 ID 313052의 경우에는 블렌딩된 와인 종류가 1백20개, 그중 가장 어린 와인은 2003년산, 오래 숙성된 와인은 1988년산, 2015년 '와인 스펙테이터'에서 95점을 받았다는 정보, 셀러 마스터 소개 등 간단한 스토리를 접할 수 있다. 그리고 스크린 아래로 더 내려가면 해당 샴페인을 홀짝이면서 감상할 만한 '음식 리스트'가 뜬다. 마일스 테이비스 같은 제츠 명장부터 차이롭스키나 베르벤 같은 클래식 거장까지 다양하다. 바로 매기 엔리케즈 체제에서 2014년부터 시작한 '뮤직 페어링(music pairing)' 프로젝트의 결과물이다. 샴페인 특유의 기포 덕분에 테라야 될 수 없는 관계인 '소리'라는 매개체를 통해 기존의 테이스팅 체험을 넘어서는 새로운 차원의 감성적 경험을 선사하고자 하는 시도다. "2012년부터 '소리를 활용한 체험'을 모색하다가 2013년 홍콩 행사에서 유명 음악인을 초청해 당시 서빙했던 샴페인과 어울리는 음악을 추천하도록 했는데, '아, 이 페어링은 꼭 시도해야 해'라고 결심하면서 이듬해 정식으로 도입했죠. 청각과 미각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옥스퍼드대에서 신경과학 계통의 연구 결과로도 발표한 바 있기에 더 고무됐습니다."

작년부터는 크루그 그랑 퀴베와 잘 어울리는 한 가지 재료를 주제로 전 세계에서 크루그 홍보 대사로 활동하는 유명 셰프들과 푸드 페어링 협업(크루그 & Single Ingredient Pairing)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의 재료는 감자, 올해의 재료는 달걀이다. "크루그는 사실 푸드 페어링이라는 영역을 제일 먼저 개척한 브랜드이기도 해요. 1970년대 5대손인 앙리 크루그와 레미 크루그가 당시로서는 새로웠던 '샴페인 디너'라는 콘셉트를 제안했거든요." 가을 햇살이 내리쬐는 오후에 서울 청담동의 한 레스토랑에서 은은한 음악을 배경으로 달걀 요리와의 샴페인 페어링을 직접 진행하면서 곁들인 매기의 자랑 섞인 설명이다.

소프트 리더십이 돋보이는 부활의 아이본
이제 7년이 흘렀을 뿐인데 매기 엔리케즈는 잠시 흐트러졌던 크루그라는 정교한 퍼즐을 빠르게 다시 맞춰나가는 '부활의 달인' 같다. 2010년부터 성장세로 돌아섰을 뿐만 아니라 재직 기간(2009~2015년) 중 연평균 성장률이 11%다. 게다가 단지 수치만 그럴듯한 게 아니라 그 모양새가 디지털 흐름과 호흡을 같이하는 세련된 모던함을 품고 있다. 그는 일부러 밀레니얼 세대를 타깃으로 한 노림수가 아니라 샴페인 애호가들이 크루그를 보다 즐겁게 경험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을 고민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나온 전략이었다고 말한다. "크루그는 '파워 브랜드'가 아니라 '사랑스러운' 브랜드예요. 힘을 선택하기보다는 '선택의 힘을 좋아하는 이들을 위한 브랜드'죠." 흥미로운 사실은 그가 전략으로 무장한 경영학도가 아니라 원래는 시스템 엔지니어링을 전공한 공학도로 출발했다는 점이다(하버드대로 유학을 가기도 했다). 그는 베네수엘라에서 주류(wine & spirits) 회사를 운영한 부친 아래 다섯 자매와 '청일' 집인 막내 남동생으로 이뤄진 화목한 가정의 넷째로 자라났다고. 운우하면서 활기찬. 이상적인 소프트 리더십을 발휘하는 모습을 보노라면 좀처럼 믿기 힘들지만, 그는 어린 시절 수줍고, 심지어는 반사회적인 아이였다고 한다. 한 때는 수녀가 되려고도 했다고. "전 사람들이 어울리기를 좋아하지 않았지만 제 부모님은 저를 절대로 '재단'하거나 어떤 '딱지'를 붙이거나 하지 않으셨어요. 덕분에 정신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됐죠. 나중에는 단서도 끊겼고요. 그처럼 자유롭게 나래를 펼칠 수 있게 해준 가정 환경 덕분일까요. 저희 자매들과 제 남동생은 건축가, 외교관, 수학자, 다큐멘터리 PD 등 저마다 자유롭게 다른 일을 해요." 공룡본모가 있다면 전부 다 정열적인 '일꾼(hard worker)'이자 글로볼 감각이 넘치는 코즈모폴리탄이라는 점이라고. 두 이들의 엄마로도 누구보다 바쁘게, 그렇지만 행복하게 살아왔다는 매기 엔리케즈. 그는 현재 크루그의 사령탑으로 맹렬히 활동하면서도 26년에 걸쳐 와인업계에 종사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박사 논문을 쓰고 있다. 그 주제는 '위기를 기회로 탈바꿈한 경험이다.' **18** **에디터 고영연**



(왼쪽 스타일링 아이템) 화이트 블라우스 1백90만원, 플라워 비즈 장식의 블랙 니트 2백35만원, 트윙들 스커트 1백80만원 모두 **자갈바티스타 발리**, 문의 02-6905-3357
 (왼쪽 위 박스부터 시계 방향으로) 벨 모티브를 새긴 블랙 미니 토트백, 18X17cm, 79만원 **백제이지**, 문의 02-3213-2365, 그레이 칼라 니트 1백28만원 **파비어나 릴라피**, 문의 02-6905-3626, 폭스 퍼플 트라밍한 니트 소재 모자 80만원대 **믹스마라**, 문의 02-3467-8326, 플라워 비즈 장식 힐 1백6000원 **자갈바티스타 발리**, 문의 02-6905-3357, 심플한 로고 장식 미니 백, 18.5X10cm, 88만원 **프리다**, 문의 02-3218-5331

(왼쪽 스타일링 아이템) 구스 재킷 2백17만원, 슬릿 디테일의 스커트 86만원 모두 **롱클러트**, 문의 02-514-0300
 (오른쪽 박스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골드 스타드 장식의 토트백, 18X20cm, 1백20만원대 **에스카다**, 문의 02-3442-5760, 가방에 포인트가 되어줄 비즈와 크림 컬러가 어우러진 퍼 핸들 1백28만원 **믹스마라**, 문의 02-3467-8326, 플라워 자수 디테일의 앵클부츠 2백만원대 **루이 비통**, 문의 02-3432-1854, 포근한 양털 소재로 만든 미니 백, 22X16cm, 55만원 **마이클코어스**, 문의 02-546-6090

18  29
DELVAUX

Gift Guide

THE FASHION

스타일리시한 여성의 마음을 사로잡을 실용적인 룩부터 감각적인 패션 액세서리까지.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왼쪽 스타일링 아이템) 포플 디테일의 스트라이프 셔츠 94만원, 더블 버튼 하모 코트 1백85만원, 자카르 소재 쇼트 팬츠 73만원 모두 **버버리**, 문의 080-770-8800
 (왼쪽 맨 위 상자부터 시계 방향으로) 브렌드 로고 장식 디테일의 시그니처 백, 23X19cm, 2백30만원대 **할프모넨 칼라백**, 문의 02-545-8200, 실크 소재의 리본 장식으로 포인트를 준 핫 1백만원대 **에르메스**, 문의 02-544-7722, 플러럴 자수 장식의 양털 슬리퍼 95만원 **구찌**, 문의 1577-1921, 양자족 소재의 클러브 1백만원대 **에르메스**, 문의 02-544-7722, 민크 트라밍이 돋보이는 T 스트랩 슈즈 2백20만원대 **신바르테 페라가모**, 문의 02-3430-7854, 벨 모티브를 새긴 GG 슈퍼릴 캔버스 자갈 49만원 **구찌**, 문의 1577-1921, 강렬한 레드 색상의 클러치, 24.5X13cm, 3백만원대 **델보**, 문의 02-3449-5916

(왼쪽 스타일링 아이템) 퍼 트라밍 롱 79만원, 그린 칼라 레이스 스커트 29만원 모두 **레트 바이티**, 문의 02-3449-5977
 (가운데 맨 위 상자부터 시계 방향으로) 몬스터 버그 아이크로 바게트 백, 13.5X8.5cm, 2백3만원 **펜디**, 문의 02-2056-9023, 유려한 픽션의 브라이들 백, 25X23cm, 4백만원대 **버버리**, 문의 080-770-8800, 브렌드 로고 디테일의 로퍼 89만원대 **토즈**, 문의 02-3438-6008, 블랙과 블루의 컬러 블로킹이 돋보이는 시타스티어 클러치, 22X16.5cm, 2백만원대 **루이 비통**, 문의 02-3432-1854, 비주얼 아티스트 장 폴 구드와 협력한 2016 콜라데이 컬렉터 에디션 토트백, 33X29cm, 57만원 **리코스테**, 문의 02-3789-4668

스타일링 사진: 유현정, 에디터: 배민진, 권유진, 이자연, 어시스턴트: 이세영, 김수민



FROM THE KINGDOM OF BELGIUM

델보 현대 압구정 본점
02 3449 5916

델보 갤러리아 EAST
02 6905 3709

델보 현대 무역센터점
02 3467 8346

www.delvaux.com

(오른쪽 스타일링 아이템) 터틀넥 45만원, 탈부착이 가능한 아더 패딩까지 함께 구성된 재킷 1백97만원, 데님 팬츠 45만원 모두 **패이**, 문의 02-3479-1649

(맨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바건티 색상의 스카츠 1백만원대 **에르메스**, 문의 02-544-7722, 벨벳 소재의 스카츠 1백2만원 **에르메스** **제나**, 문의 02-3453-2287, 벨 모티브와 GG 로고 그래픽이 돋보이는 클라치, 34X25cm, 2백46만원 **구찌**, 문의 1577-1921, 그레이 컬러의 시트라이얼 클라치백 26X15cm, 68만원, 스타 로고 장식의 지갑 36만원 모두 **몽블랑**, 문의 1670-4810



(오른쪽 스타일링 아이템) 이중금 디테일로 보온성이 뛰어난 따뜻한 패딩 점퍼 1백98만원 **백마크**, 문의 02-3213-2365, 그레이 코듀로이 팬츠 1백24만5천원 **에르메스** **제나**, 문의 02-3453-2287

(맨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거대한 패턴이 돋보이는 클라치, 28X23cm, 1백25만원 **살비토레 페라기모**, 문의 02-3430-7854, 다양한 컬러와 패턴이 어우러진 백팩, 26X41cm, 1백93만원 **프라다**, 문의 02-3218-5331, 숄더가죽 소재 트레킹 슈즈 1백29만원 **몽블랑**, 문의 02-514-0900, 인크레이징 가능한 캐시미어 스카프 88만원 **버버리**, 문의 080-700-8800



스워브로워 워킹, 에디트 베버리, 마쉬, 아리엔, 크리스탈 이어링, 갈슈만

(오른쪽 스타일링 아이템) 테디 베어 자수 니트 49만9천원, 블랙 허브 코트 79만9천원, 머플러 11만9천원, 데님 팬츠 16만9천원 모두 **홀프루엔**, 문의 02-545-8200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그레이와 네이비 색상이 조화로운 스웨이드 소재 스카츠 1백90만원 **로로피아나**, 문의 02-549-7734, 고기능 슈즈의 패들 장갑이 돋보이는 엔젤룸 백, 39X33cm, 2백70만원대 **토즈**, 문의 02-3438-6008, 최상급 캐시미어로 만들어 68만원, 장갑 38만원 모두 **몽블랑 노블** **제이버**, 문의 02-2118-6165, 아이패드를 넣을 수 있는 사이즈의 가죽 노트 케이스 87만원대, 카드와 동전 등 필요에 따라 분리해 수납할 수 있는 지갑 99만원대 모두 **스미스**, 문의 02-310-1708



(오른쪽 스타일링 아이템) 체크 셔츠 48만원, 아보 털 자켓 카디건 2백47만원, 면 팬츠 63만원 모두 **에르메스** **제나**, 문의 02-3453-2287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빗줄 모티브 프린팅이 돋보이는 다미에 캔버스 소재 코워트 클라치, 27X21cm, 2백만원대 **루이 비통**, 문의 02-3432-1854, 선명한 블루 컬러의 시트라이얼 도큐먼트 케이스, 26X28cm, 1백23만원 **몽블랑**, 문의 1670-4810, 빈티지한 레더로 만든 로퍼 70만원대, 로고 장식 벨트 30만원대 모두 **홀프루엔** **파퐁 리벨**, 문의 02-545-8200



Gift Guide THE FASHION

클래식한 스타일부터 캐주얼한 스타일까지 쿨하게 즐길 줄 아는 멋진 남성을 위한 기프트 셀렉션,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GiveBrilliant

WITH THE HOLIDAY COLLECTION DISCOVER MORE AT SWAROVSKI.COM



90년 전통으로 미움을
채워온 달콤한,
고소하고는 신상인
연상 꿀 케이크인 **루즈**.
문의 02-516-0016

눈꽃송이를 모티브로
한 트리 오-라운드
26만원 **바카라**.
문의 02-3448-3778

파티 분위기를 고조시킬 수 있는,
정교하게 다듬은 크리스탈 받침의
캔들 홀더 11만2천원 **스외로브스키**.
문의 1661-9060

생수, 민물고기, 스테이크, 생선 등
냉장품 보관용(1인용) 전용 냉각제 **에코**.
문의 080-330-8877



공기청정 기능은
물론 계절에 따라
냉방, 온풍이 가능한
퓨어 핫앤콜드 필터
공기청정 냉온풍기
99만원대 **다이아**.
문의 1588-4263



크리스마스를 맞아
한국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사하란 보디의 라이카
X-SNOW 에디션 2백99만원
라이카. 문의 1661-0405



한 폭의 예술 작품을
연상시키는 타이틀웨어
컬렉션, 카트네
데코투르(Carnets
D'equateur)의 티르트
플라터 60만원대, 물
1백만원대 모두 **에르메스**.
문의 02-544-7722



에르메스, 카트네, 카트네,
에르메스도 **에르메스**.

Gift Guide THE LIVING

가 부터 구, 연인을 위한 선물이 고민이라면? 여기, 받는 이의
다양한 향을 고려한 센스 있는 리 아이템을 눈여겨보자.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시즌 한정 컬러로 선보이는, 수납과 운반이
편리한 **볼박스** **비트라 by 에이코스**.
문의 02-2479-1993



자연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줄
스패셜 패키지로 선보인 **클라르**
EOV 2016, 750ml,
8만원대 **비브 클리코**.
문의 02-2188-5100



올리비아 무를 영감
수 있는 **카르네이션스** 무를
눈이 내리는 무의 향기를 **에스카도**
전용 **에코** **비트라 by 에이코스**.
문의 070-6832-0175



무광 메탈 소재와 유려한 곡선 라인이 감각적인 디스토펙트 컬렉션의 퓨처
브론즈 컬러 전기 주전자 19만9천원 **드롱기**. 문의 080-488-7711



선명한 연필 컬러의
양가용이 매력적인 수첩
연인용 **스노우**.
문의 02-310-1708

럭셔리, 혁신에 대한 최고의 찬사.

THE ALL-NEW BMW 7 SERIES. DRIVING LUXURY.

시선을 넘어 시대마저 앞서가는 당신에게는 남다른 품격이 있습니다. 퍼스트 클래스와 같은 안락함을 제공하는 이그제큐티브 라운지와 마음에 여유를 더하는 스카이 라운지 파노라마 글라스 선루프, BMW 뉴 7시리즈만의 터치 커맨드는 럭셔리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합니다. 앞선 자를 위한 가장 앞선 럭셔리, BMW 뉴 7시리즈입니다.

BMW EXCELLENCE CLUB은 오직 BMW 뉴 7시리즈 고객님을 위한 멤버십으로 프리미엄 서비스와 특별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BMW EFFICIENT DYNAMICS.
750Li xDrive 8.4km/l 450hp

BMW 커뮤니케이션 센터 080-269-2200 BMW 공식 홈페이지 www.bmw.co.kr BMW 페이스북 www.facebook.com/BMWKorea
장투 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BMW 740Li xDrive 배기량 2,998cc, 공차중량 2,015kg, 차중량 8,440kg, 회전반경 9.7m, (도심연비 8.4km/l, 고속도로연비 11.9km/l) 복합CO₂배출량 179g/km, 4등급 750Li xDrive 배기량 4,395cc, 공차중량 2,155kg(4인승)/2,145kg(5인승), 차중량 8,440kg, 회전반경 8.4km, (도심연비 7.1km/l, 고속도로연비 10.6km/l) 복합CO₂배출량 209g/km, 5등급 *표시된 에너지소비효율은 해당 나라의 에너지이며, 모델 사양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에너지소비효율은 가까운 딜러에 문의하시거나 홈페이지의 정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모델별 옵션 적용 사항은 가까운 BMW 공식 딜러 전시장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정보는 BMW 7 Series 마이크로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www.bmw7series.co.kr

나눔, 더 나은 미래의 시작입니다. BMW 코리아 미래재단



터치 커맨드, TOUCH COMMAND.



스카이 라운지 파노라마 글라스 선루프, PANORAMA GLASS ROOF SKY LOUNGE.



이그제큐티브 라운지 (마사지 기능 포함), EXECUTIVE LOUNGE.

Best Seller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샤세이도** **얼티문 파워 인퓨징 컨센트레이트** 다양한 허브 성분을 함유해 피부에 닿자마자 즉각적인 보습과 진정 효과를 느낄 수 있다. 75ml 18만원대. **시슬리** **시슬리아 렐렉티발 앙티 아주** 주름을 완화하고 항산화 효과를 선사한다. 50ml 50만원대. **SK-II** **페이셜 트리먼트 에센스** 브랜드의 독보적인 **피테비나** 성분을 90% 이상 농축했다. 160ml 19만원대. **멜비타** **호호바 뷰티 오일** 얼굴뿐 아니라 모발과 두피, 손톱 등의 영양 관리에도 탁월하다. 50ml 4만2천원. **CNP 리얼 마데카스사이드 크림** 상처 치료 연고의 주성분이기도 한 마데카사이드를 함유해 손상된 피부를 집중적으로 케어한다. 50ml 5만5천원. **리프레이스킨 케어아 릅스 크림** 수어 케어이 주성분이 피부 깊숙이 수분과 영양을 공급하고 탄력을 증진시킨다. 50ml 57만원대.



Holiday Limited Edition

(왼쪽 중앙부터 시계 방향으로) **샤세이도** **마카야주 레디 칼라바레이션 북 미즈하라 카모 에디션** 페이스와 체크, 아이섀도우와 립스틱을 담았다. 5만9천원대. **클레드보 보메 리자체를 칼랙션 아이 컬러 팔레트** 우아하고 관능적인 메이크업 룩을 완성해줄 것. 9g 15만9천원대. **샤넬 주 쥘프라스트 360 이베오프레쉬** 바르는 즉시 건강한 윤기를 선사하는 장엄적인 핑크 블러셔다. 샤넬 글로벌 메이크업 크리에이티브 디자이너 루치아 피카와 메이크업 크리에이션 스튜디오가 개발한 첫 번째 리브로 칼렉션. 6g 5만5천원. **샤넬 아슈타르티크 아이섀도우 팔레트** 벨벳 블루부터 매혹적인 그레이까지 다섯 가지 컬러의 아이섀도우를 담았다. 5g 8만9천원. **클레드보 보메 립 컬러 팔레트** 칸텔마루미 아티스트 애슐리 톱쇼와 협업해 탄생시킨, 대담한 어인이 그려진 패키지가 매력적이다. 2.5g 7만5천원.



에티카 배미안, 권유진, 이진민, 이시은, 김수민

Gift Guide THE BEAUTY

부모님을 위한 프레스티지 라인부터 브랜드 베스트셀러 아이템과 시그너처 향수, 그리고 시즌 한정 컬러와 특별한 패키지로 선보이는 홀리데이 에디션까지. 감사의 마음을 고이 전달해줄 뷰티 셀렉션.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Signature Perfume

(왼쪽 아래부터 시계 방향으로) **폴 포드 화이트 스웨이드** 남바노소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머스크 향을 가장 우아하게 표현했다. 50ml 27만원대. **얏만스 24 울드 본드 스트리트 오드 코롱 리미티드 에디션** 타카시 로즈 압슬루 향과 블랙티, 싱글몰트 워스카의 스모키한 보디감이 어우러진다. 100ml 27만원대. **존 바버토스 다크레블 라이더 오데토알렛** 매끈한 가죽 라이터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한 보틀에 깊은 레드 향과 앰버 향의 조화에 다크한 우디 향을 담았다. 125ml 11만3천원. **마크 제이콥스 다비인 데카당스** 여성들이 좋아하는 오렌지 블루섬과 베르가모트의 향을 담은 앙증맞은 핸드백 모양의 보틀이 인상적이다. 50ml 10만9천원. **블거리 로즈 고티에아** 벨가리 세르펜티 컬렉션의 모티브로 한 향수로, 로즈와 머스크의 우아한 조화가 돋보인다. 50ml 14만5천원.



Prestige Cosmetic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클레드보 보메 르 세렘** 스킨케어 첫 단계에 사용해 피부 본연의 광채를 되찾아준다. 40ml 35만9천원대. **랑콤 압슬루 프레셔스 오일 너리싱 루미너스 오일** 고품질 금빛 오일로 피부에 광채와 풍부한 영양을 선사한다. 30ml 24만원대. **시슬리 수프리미아** 크림처럼 리치하고 끈끈한 텍스처로 자는 동안 피부 재생력을 효과적으로 끌어올려준다. 50ml 80만원대. **데코르테 AQ 일리오리타 인텐시브 크림** 피부 속부터 수분감을 탄탄하게 채우고 촉촉함을 오랫동안 유지시켜준다. 45g 1백58만원대. **프레쉬 크렘 앙시엔느 크림** 최고급 원료와 체코 수도사의 신성한 노동을 결합해 만든 리치한 텍스처의 크림이다. 100g 45만원대.



샤세이도 080-564-7700 시슬리 080-549-0216 SK-II 080-023-3333
 멜비타 02-3014-2997 CNP 080-023-7007 리프레이스킨 080-511-6626 클레드보 보메 080-564-7700 랑콤 080-001-9500
 데코르테 080-568-3111 프레쉬 080-822-9500 폴 포드 02-3440-2696 마크 제이콥스 080-850-0708 얏만스 080-800-8809
 존 바버토스 02-3443-1805 블거리 080-990-8989 샤넬 080-332-2700



땅을 빌어 하늘이 키운 삼

정관장 뿌리삼

사람의 정성에 땅과 하늘의 기운이 만나야만 완성되는 귀한 홍삼, 정관장 뿌리삼. 117년 이어져온 정관장의 제조 노하우에 홍삼명장의 까다로운 선별과정을 거쳐 탄생합니다.



KGC인삼공사

피아제 시그니처 라인
포제션에서 영감을 얻은 볼륨감
있는 밴드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하고, 양 측면을 섬세한
가드밴드로 장식한 18K 핑크 골드
포제션 펜던트 네크리스 2백만원대
피아제, 문의 02-540-2297



브랜드의 상징적 존재인 방동 광경을 형상화한 팔각형의 모던한 케이스 디자인과
트윈드 패턴을 더한 스틸 브레이슬릿이 유니크한 보이프렌드 트윈드 스틸 사이즈 스틸 워치
5백만원대 **사벨 화인주얼리**, 문의 02-3442-0962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중앙에
열로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카바미일
꽃 모티브의 미니 카바미일 펜던트
네크리스 1백80만원대, 밀 그레인
가방으로 작고 상쾌한 원형 비즈를
다이아몬드로 주위에 세팅해 3개의
장미꽃 바구니를 표현한 파-에 핑크
골드 펜던트 네크리스 90만원대, 메인
다이아몬드를 둘러싼 작은 다이아몬드로
장미 꽃잎을 표현한 브링뉴 플라넬 골드
네크리스 1백80만원대, 행운의 상징인
나비가 리드미컬하게 날고 있는 모습을
모티브로 한 백패용 핑크 골드 다이아몬드
링 1백40만원대, 영원한 두 사람의 인연을
탄탄하게 붙여주는 리본으로 형상화한
누브랑 플라넬 골드 다이아몬드 링
1백30만원대 모두 **루시에**, 문의 02-512-6914



일함브라 디자인의 케이스가 사랑스러운
반타지 일함브라 여성 워치. 화이트
골드 케이스와 인테스를 사랑하는 화이트
자개 다이얼에서 심플함과 여성스러운
우아함이 엮인다. 9백30만원
반탈리프 아펠.



타파니의 일파켓
아나셀 T가 내장을
이루는 구조적인
디자인이 돋보이는
타파니 T와이어
브레이슬릿 18K 로즈
골드, 18K 옐로 골드,
18K 화이트 골드 각
2백30만원대 **타파니**.
문의 02-547-9422



(왼쪽부터) 클래식한 디자인으로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마스터 울트라씬 데이트
남성 오토매틱 워치. 우아한 스페인 컬러의 다이얼, 그리고 그 위에 6시 방향의 날짜
표시창과 섬세하게 디자인한 인테스를 세팅했으며 백 케이스를 통해 길버버 899/1을
감상할 수 있다. 9백50만원. 1936년 예거 르쿨트르의 반타지 워치에서 영감을 받은
모델로, 당시의 곡선형 이리베이스자와 도파네 핸즈를 그대로 재현한 라베르스 원
코르도네 여성 쿼츠 워치 9백30만원 모두 **예거 르쿨트르**, 문의 02-3449-5912

Gift Guide
THE JEWEL

한 해 동안 뜻깊고 값진 시간을 함께 보낸
소중한 이에게 전하는, 눈부시게 반짝이는
아름다움과 실용성을 겸비한주얼리 & 워치
기프트 컬렉션.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1957년 전통 다이아몬드를 위해 특별 제작한 시아스터 300을 오마주하며 현대적으로
업그레이드해 선보이는 시아스터 300 남성 워치. 반타지 슈퍼 루비노비로 코팅 처리한
핸즈와 블랙 컬러의 샌드 블레스팅 다이얼, 리무드 메탈을 더한 세라믹 베젤링을 경쾌
물속에서 뛰어난 가독성과 내구성을 발휘한다. 7백만원대 **오메가**, 문의 02-511-5797



시간의 재물시를 연상시키는 심플하고도 유니크한
캡슐형 디자인에 자개, 옻칠 등 다양한 컬러와 소재의
원석,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특별함을 더한 아틀레트 드
카르띠에 네크리스. 왼쪽부터 코랄 카바미일 2백50만원대,
블랙 옻칠 2백20만원대, 그린 크리스프레이즈
3백10만원대 모두 **카르띠에**, 문의 1566-7277



(왼쪽부터 차례대로) 동그런 카바의 특이한
라그 모양으로 오랜 시간 에르메스 메종의 주요
라인 중 하나로 선보여온 케이프 코드 컬렉션.
인공우스 루브란트인 H1912를 장식했으며, 투명한
크리스탈 백 케이스를 통해 상세하고 아름다운
무브먼트의 마장과 움직임을 감상할 수 있다. 케이프
코드 TGM 오토매틱 남성 오토매틱 워치 7백만원대,
스트랩을 쉽게 교체할 수 있도록 인타제이션을 스트랩을
다해 다양한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는 케이프 코드 PM 여성
퀼츠 워치 3백만원대 모두 **에르메스**, 문의 02-3015-3283



타사카에서만 만날 수 있는 시투라 골드"에 작지만 우아한
빛을 발산하는 최상급 이리베이스를 더해 귀엽고 단아한
느낌을 주는 백드 필 컬렉션. 네크리스와 브레이슬릿은 서로를
연결해 롱 네크리스로도 연출할 수 있다. 백드 필 네크리스
1백50만원대, 백드 필 링 1백30만원대, 백드 필 브레이슬릿
1백10만원대 모두 **타사카**, 문의 02-3461-5568



남성가는까지는 세련된 라인의 쿼스형
케이스에서 개성과 품격이 드러나는 드라이브
드 카르띠에 남성 오토매틱 워치. 드라이브라는
클래식한 라디에이터 그릴을 연상케 하는
기묘한 모티브 다이얼, 6시 방향의 카운터, 볼트
형태의 와인딩 크라운 등 자동차 부품에서 영감을
받은 디자인을 더한 것이 특징이다.
7백50만원대 **카르띠에**.



(위부터 차례대로) 탐스럽게 피어난
동백꽃 모티브에 총 0.85캐럿 상당의
1백80개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카바미일과 주르 브레이슬릿
1천만원대, 볼륨감 있는 심플한
밴드 디자인에 X자 패턴을 더해
모던하면서도 세련된 디자인을
완성한 코크로쉬 베이지 골드 스틸 링
2백만원대, 코크로쉬 베이지
골드 미디엄 링 3백만원대
모두 **사벨 화인주얼리**.



행운의 상징인 일함브라 모티브에 최상급
다이아몬드와 초록빛 말라카이트를
균형감 있게 세팅한 일함브라 말라카이트
컬렉션. 이아젤 2천만원대, 브레이슬릿
1천2백만원대, 말라카이트 원석을
중심으로 사이드로 갈수록 작아지는 원형
골드 비즈 밴드가 유니크한 말라카이트
배틀리 컬러 베어링이선 링 3백만원
모두 **반탈리프 아펠**.
문의 00798-882-16123



빛을 뜻하는 0 킬로이러 luce와 라틴어 lux를 합성해 이름 지은, 빛과 해시계에서 영감을 받은
루시에 여성 오토매틱 워치. 우아한 퍼플 색상의 약아구스 스톰, 다이아몬드 인테스, 핑스톤을
세팅한 크라운 장식이 돋보인다. 7백만원대 **루시에**, 문의 02-2066-0171



전설적인 아베우 엘라비베스
테일라에게서 영감을 받은 다이스
드림 컬렉션으로, 영화 <블레이드 러너>
속 그나이 강렬한 메인 테마와 기하학적인
부채 모티브를 아름답게 표현했다.
위부터 블루 컬러의 라피스 라줄리 세팅의
핑크 골드 브레이슬릿 1백만원대,
레드 및 코랄 세팅의 핑크 골드 플라멩고
2백만원대, 블루 컬러의 라피스 라줄리와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핑크 골드 네크리스
2백만원대, 라이트 블루 컬러의
타워아 조와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핑크
골드 네크리스 2백만원대 모두 **블라지**.



(왼쪽부터) 지구를 형상화한 다이얼 위에서 24개의
타입 존을 확인할 수 있는 몽블랑 4810 오르비스 테리움 남성
오토매틱 워치 7백만원대, 데이 & 나이트 인디케이션을 통해
낮과 밤이 바뀌는 모습을 아름답게 표현한 보헤미안 데이 앤 나잇
여성 오토매틱 워치. 18K 레드 골드와 스테인리스 스틸을
콤비네이션한 케이스 위에 72개의 다이아몬드를 풀 세팅해 화려한
아름다움을 더했다. 6백만원대 모두 **몽블랑**, 문의 1670-4810



(위부터 차례대로) 브랜드 아나셀인
일파켓 T를 모던하고 입체적으로
재해석한 타파니 T 스퀘어 링 18K 로즈
골드, 18K 옐로 골드, 18K 화이트 골드
각 1백90만원대, 아나셀 T로 위트 있는
스마일 모티브를 표현한 타파니 T 스마일
브레이슬릿 18K 로즈 골드, 18K 화이트
골드 각 800만원대 모두 **타파니**.



1개의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베젤이 손목의 움직임에 따라
다이얼 주위를 회전하며 우아함을 선사하는 포제션 여성 쿼츠
워치. 여성스러운 18K 핑크 골드 케이스로 재즈했으며 교체할
수 있는 스트랩을 함께 제공한다. 9백만원대 **피아제**.
에티어 베이진, 권유진, 이지연

(여자) 오리엔탈리즘 비즈 장식을 더한 레드 재킷 5백38만원, 고급스러운 페이즐리 패턴의 롱 드레스 5백25만원 모두 에트로, 볼드한 네크리스 1백10만원 스티븐보스키.

(남자) 강렬한 레드 컬러 롱 코트 3백만원대, 브라운 레드 컬러 니트 롱 1백만원대, 화이트 셔츠 1백만원대 모두 다올.

(여자) 네코라인이 깊이 파인 블랙 패턴 드레스, 실크 시폰 롱, 시폰 스카프 모두 가격 미정 루이비통, 다리를 부드럽게 감싸는 비글 장식의 벨벳 롱부츠 2백48만원 주세페 자노티.

(남자) 알탕이는 프리지 장식을 가미한 블랙 티셔츠 재킷, 블랙 롱 셔츠, 블랙 울로 셔츠, 팬츠 모두 가격 미정 자황시 by 리카르도 티시, 쉘시 부츠 가격 미정 지미우, 블랙 컬러 프레임 선글라스 16만5천원 트리티.



THE COUPLE

그 여자, 그리고 그 남자, 함께하는 시간을 더욱 스타일리시하게 만들어줄 12월의 커플 룩 제안. *photographed by jung ji eun*





(남자) 블루 컬러 더블 코트와 니트, 팬츠
모두 가격 미정 **보타가 베네다**.
마름모 패턴 스카프 가격 미정 **황방**.
(여자) 볼륨감이 풍성한 라이트
블루 컬러 퍼 코트 1백95만원
마이클코어스 컬렉션, 플라워 패턴 셔츠
4백33만원, 플라워스카프 1백98만원
모두 **구찌**, 왼쪽 손목에 찬 위치
3천1백50만원 **에거 로콜트르**.

(여자) 연티드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블루 벨벳 패턴 롱 코트, 블랙 벨벳 드레스
모두 가격 미정 **탈프르엔**. 다양한 크기의
진주로 볼륨감을 표현한 네크리스,
은은한 반짝임을 선사하는 이어링
모두 가격 미정 **스외로브스키**.
(남자) 플로럴 패턴의 자카르
더블브레스트 턱시도 재킷, 화이트 셔츠,
블랙 컬러 턱시도 트라우저,
블랙 보타이 모두 가격 미정 **탈프르엔**.
심플한 슬림은 2백8만원 **쥬세페 자노티**.





(여자) 강력한 레오파드 패턴 롱 코트
가격 미정 **자랑시 by 라카르도 티시**,
화이트 드레스 가격 미정 **자랑시비스타**
발리, 칼라 블록 스타일의 스트랩 힐
1백28만원 **쥬세레 자노티**, 안셀무스
아아링 가격 미정 **렉토**.

(남자) 브라운 컬러 벨벳 더블 버튼
재킷, 니트 롱, 와이드 팬츠
모두 가격 미정 **조르지오 아르마니**,
멀티 컬러 스카프 장식 로퍼
가격 미정 **크리스찬 루부탱**.



(남자) 더블브레스트 자카르드 수트,
비즈 장식 니트 롱 모두 가격 미정
에르메네르조 제나우워르 칼레신,
왼쪽 손목에 찬 워치 2천8백10만원
에거 르콜트르.

(여자) 브라운 롱 퍼코트 가격 미정
막스마라, 패턴 롱, 주얼 장식 블랙 칼라
스카프 모두 가격 미정 **다울**.

(남자) 이상 스타일의 자카드 재킷 3백10만원, 반짝이는 플로럴 프린트가 화려한 테일러드 재킷 1백50만원, 러플 장식을 가미한 스트라이프 코트 셔츠 83만원, 블랙 팬츠 83만원 모두 **바버리**. 블랙 벨벳 소재 앵글부츠 가격 미정 **자참시 by 리카르도 티시**. 골드 컬러 프레임의 안경 23만5천원 **트리티**.

(여자) 플로럴 프린트 러플 드레스 5백20만원 **바버리**, 사이하이 부츠 가격 미정 **로저 비비에**, 진주 드림 이어링 1만8천원 **엠주**, 더블 진주 링 가격 미정 **스외로브스키**.

(여자) 우아한 느낌의 골드 주얼 장식 벨벳 드레스 가격 미정 **프라다**, 드림 이어링 5만3천원 **엠주**, 진주를 사랑한 골드 링 13만5천원 **엠스웨그**.

(남자) 클래식한 블랙 칼리 슈트 3백44만원, 심플한 라이드 블루 칼리 셔츠 77만원, 옐로 카디건 1백28만원, 자수 디테일을 가미한 타이 25만원 모두 **구찌**.



모델 강소영, 박경진
헤어 이선영
메이크업 최사노
스타일리스트 채환석

프라다 02-3442-1830
엠주 02-3446-3068
엠스웨그 02-3444-1349
구찌 1577-1921
자참시 by 리카르도 티시 02-517-7560
자참시 테일러드 발리 02-6905-3357
쥬세페 지노티 02-543-1937
렉토 02-1522-7720
조르지오 아르마니 02-549-3355
크리스찬 루부탱 02-541-8550
발프루엔 02-545-8200
스외로브스키 1661-9060
바버리 080-700-8800
트리티 031-714-0907
로저 비비에 02-6905-3370
에트로 02-511-2573
디올 02-513-0300
보타가 베네타 02-515-5840
지미추 02-3443-9469
랑방 02-3438-6186
마이클코어스 컬렉션 02-546-6090
에기 르콜트르 02-3449-5912
루이 비통 02-3432-1854
에르메시빌도 제나 꾸뛰르 컬렉션 02-518-0285
믹스마라 02-3467-8326



unsurpassed Elegance

시선을 사로잡는 비주얼에 뛰어난 완성도까지 담았다면 하이엔드로서의 가치는 충분하다. 오직 여성들을 위한 기계식 시계의 비전을 선보인 리처드 밀 RM 037 시리즈. 그 화려하고 견고한 세계로의 초대.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유니크한 토너형 케이스에 다이아몬드를 풀 파베 세팅한 드라피탄 RM 037 레이디스 워치. (왼쪽부터 시계 반대 방향으로) NTPP 카본 소재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RM 037 워치, 타 브랜드에서 도저히 어려운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카본 소재에 다이아몬드를 정교하게 세팅했다. 레드 골드 다이아몬드를 풀 파베 세팅한 RM 037 워치. 스칼렛트 차리한 다이얼이 화려하다. 공극의 파나싱 기술을 엿볼 수 있는 RM 037 블랙 세라믹 모델의 백 케이스. 아주 작은 부품까지도 정교하게 마감했다.

© sponsored by RICHARD MILLE

하이엔드 여성 워치의 새 장을 열다, 리처드 밀(Richard Mille)

2001년 리처드 밀의 등장은 많은 시계 애호가에게 변화의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하이엔드 워치는 클래식해야 한다는 기존의 관념, 과감한 디자인의 워치와 비교적 최근에 탄생한 브랜드의 워치는 세컨드 워치의 위치를 넘어서기 어렵다는 모든 통념을 전복시켰기 때문이다. 클래식한 고가 여성 워치만이 보수적인 하이엔드 시계 소비자를 리드한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개성을 드러낼 수 있는 유니크함으로 스위스 시계 시장에 파란을 일으켰다. 물론 이 인상적인 디자인에 전문적인 소재로 기계적인 완성도를 추구한 메카니컬 워치의 가치까지 담았다는 것이 중요하다. 디자인부터 성능까지 완벽을 추구하는 브랜드로서 시계 마니아들에게 새로운 선택지를 제공했다는 것은 시계 시장에 새로운 가치를 제안한 것이기에 그 의미는 더욱 깊다. 특히 아시아 시장에서 리처드 밀의 약진은 놀라울 정도다. 아시아 주요 도시에 플래그십 스토어를 오픈한 것은 물론 세계적인 셀러브리티와 스포츠 스타와의 교류, 주요 워치 박람회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브랜드의 위상, 이 모든 것이 브랜드 론칭 10년 이내에 일어났다는 사실은 기념비적인 결과다. 여성 워치 분야에서 최근 5년간 다양한 시도를 했는데, 브랜드 론칭 초기에 남성과 여성이 함께 착용할 수 있는 워치를 선보인 것을 넘어, 지난 2014년을 '여성의 해'로 선언하며 남녀 공용으로 출시했던 RM 037 워치를 재해석해 여성용으로 새롭게 출시했다. 이는 유니크한 워치 컬렉션을 원하던 여성들에게 열렬한 반응을 이끌어냈다. 최근에는 다양한 버전의 다이아몬드 풀 세팅 모델을 선보였는데, 미세한 흔들림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한 세팅이 리처드 밀의 기술력을 보여준다. 워치 자체를 제작할 때도 브러싱과 폴리싱, 조립과 최종 품질 검사까지 모두 수작업으로 진행하기에 다이아몬드 세팅의 완성도 역시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브랜드 고유의 기술적 특징과 섬세한 디테일, 우아함까지, 고급 시계가 갖추어야 할 주요 요소를 독창적으로 해석한 리처드 밀의 여성 워치는 시계 마니아들 사이에서 없어서는 안 될, 반드시 수집해야 할 워치가 된 것이다.

여성들을 위한 최고의 기계식 시계, RM 037 레이디스 워치

손목을 감싸는 유기적인 디자인의 토너형 케이스의 형태만으로도 독보적인 매력을 자아내는 리처드 밀의 RM 037 레이디스 모델. 올해는 남성 워치의 전유물로 인식된 카본 소재, 그중에서도 초고가 소재인 NTPP 카본에 다이아몬드를 파베 세팅하는 파격적인 기술력으로 모두를 놀라게 했다. 그래픽적인 다이얼 디자인에 50시간 파워 리저브, 그레이드 5의 티타늄 소재 베이스 플레이트와 브리지까지 강력한 내면을 담고 있는 CRMA1 칼리버를 장착해 더욱 특별하다. 특수한 형태로 디자인한 고잉 트레인의 휠 톱니와 프리 스프링 밸런스 및 형상 가변 로터까지 더했기에 RM 037 레이디스 모델은 리처드 밀 고유의 완벽에 대한 집념을 원하는 여성에게 어울리는 특별한 워치인 것. 물방울을 연상시키는 2개의 푸셔도 이 워치의 시그니처 중 하나다. 3시와 4시 사이에 있는 작은 창(H-N-W)을 통해 어떤 기능을 선택했는지 알 수 있는데, 10시 방향에 자리한 푸시 버튼을 누르는 것만으로도 날짜를 간편하게 조정할 수 있고, 4시 방향에 있는 푸시 버튼을 한 번 누르면 자동차의 변속기처럼 와인딩, 시간 설정, 혹은 중립 위치를 선택할 수 있다. 투명한 백 케이스를 통해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는 CRMA1 칼리버의 움직임이 더욱 아름다운 이유 역시 놀라운 완성도 덕분이다. 새틴 폴리싱 표면 처리와 쇼트 피니싱, 브러싱과 희귀한 블랙 폴리싱 작업을 거친 부품은 다양한 텍스처가 조화를 이루어 무브먼트의 각 디테일이 새로운 아름다움을 선사한다. RM 037의 케이스는 NTPP 카본, 레드 골드, 화이트 골드, 티타늄 케이스와 화이트 세라믹, 블랙 세라믹 중 선택할 수 있어 선택의 폭이 넓다. 그리고 다양한 스톤 세팅 및 다이아몬드, 였닉스, 머티오브릴, 제스퍼 등으로 다이얼을 장식할 수 있어 자신만의 디자인을 원하는 여성들에게 소장 가치가 더욱 높다. 문의 02-2230-1288 에디터 배미진



1 화이트 골드에 다이아몬드를 풀 파베 세팅한 RM 037 모델. 다이얼 가운데 레드 컬러 재스퍼를 세팅해 강렬한 여성기를 담았다. 2 블랙 세라믹과 다이얼 가운데 매치한 블랙 였닉스기 조화를 이룬 올 블랙 세라믹 모델. 무브먼트를 스칼렛트 차리해 운동감을 느낄 수 있다.



for WOMEN (왼쪽부터 차례대로) 후드를 포함한 안감 전체를 매혹적인 레드 컬러의 풍성한 토키털로 라이닝해 보온성은 물론 세련되고 스타일리시한 감성까지 더한 2016 F/W 레나 컬렉션 피리닝 먼 이상 2백98만원. 국내 셀러브리티들이 착용해 인기를 끈 맥케이지의 시그니처 디자인으로, 한국 문장을 기념해 시크한 블랙 컬러에 풍성하고 세련된 실버 폭스 트림을 더한 코리아 리미티드 에디션 트러쉬-K스타 패딩 2백58만원. 군더더기 없는 미니멀한 디자인과 보온력을 강화한 이중 지퍼로 따뜻한 맥케이지 마블라 다운 패딩. 부드럽고 고급스러운 무광택 그레이 컬러와 블랙 퍼의 대조가 스타일리시하다. 후드의 라운 퍼 트림과 함께 묵직한 울리오는 후드 안쪽의 토키털 라이닝이 따뜻하고 고급스럽다. 1백78만원. 모두 맥케이지.

© sponsored by MACKAGE

warm & Glam

글래머러스하고 세련된 디자인, 부드러운 감촉의 최고급 퍼를 아낌없이 사용해 보온성은 물론 스타일까지 살린 특별한 프리미엄 아우터를 찾는다면 주목할 것. 시크한 뉴욕의 감성을 느낄 수 있는 맥케이지(Mackage)에서 선보이는 럭셔리하고 따뜻한 윈터 아우터가 준비되어 있으니!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세련된 뉴욕의 감성을 담은 프리미엄 패딩 아우터, 맥케이지

수년 만에 최대 한파가 예고된 올겨울, 매서운 칼바람에 대비해 뛰어난 보온성과 스타일까지 겸비한 먼 하나의 아우터에 투자한다면 단연 뉴욕 감성을 담은 맥케이지의 프리미엄 패딩을 추천한다. 어떤 특이한 세련되고 우아하게 매치되는 맥케이지의 아우터는 고급스러운 소재와 최고급 퍼, 몸의 라인을 살려낸 세련된 실루엣으로 프리미엄 패딩 마켓의 강력한 루키로 주목받고 있다. 맥케이지는 1990년 뉴욕에서 디자인을 전공한 에란 엘파시(Eran Elfassy)와 엘리사 다한(Elisa Dahan)이 론칭한 브랜드로, 하이엔드 패션의 중심지인 뉴욕 소호 지역에 플래그십 스토어를 오픈하면서 전 세계 패션 피플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하고 있다. 광범위하지 않은 독창적이고 개성 있는 디자인과 더불어, 착용감이 편안한 것은 물론 힘이 느껴지는 고급스러운 소재 선택, 이중 지퍼 등의 세심한 디테일로 실용성과 내구성 면에서 모두 뛰어난 스펙을 자랑한다. 보통 마백만원을 호가하는 프리미엄 퍼 아우터를 2백만원대의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대에 만날 수 있다는 점도 매력적이다. 맥케이지는 캘리포니아 베벌리 힐스 웨스트, 현재 백화점 입구점 본점, 뉴욕 맨해튼, 롯데 에버뉴얼 월드타워점, 롯데백화점 강남점, 신세계백화점 본점, 엘브리스타일 가루수길 본점에서 만날 수 있다. 문의 02-3213-2365 에디터 권유진

for MEN (왼쪽부터 차례대로) 활동성을 높인 딥스 슷 다운 패딩. 내이퍼와 골드 지퍼의 배색이 럭셔리하다. 1백78만원. 맥케이지의 시그니처 패딩인 에드워드 컬렉션. 힘 있는 소재가 체형을 잡아주고, 탈착할 수 있는 라이닝과 라운 퍼 트림으로 보온력을 높였다. 1백98만원. 토키털 라이닝과 후드의 풍성한 라운 퍼 트림으로 럭셔리함을 더한 모리스 피리닝 먼 이상. 2백18만원. 모두 맥케이지.



가루수길 이노베이션, 베이 서울 스토어(02-749-2213)

magic of the Jew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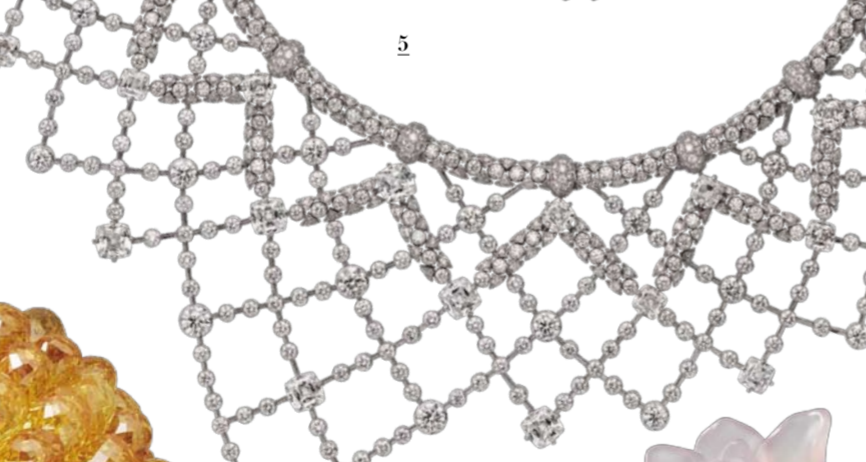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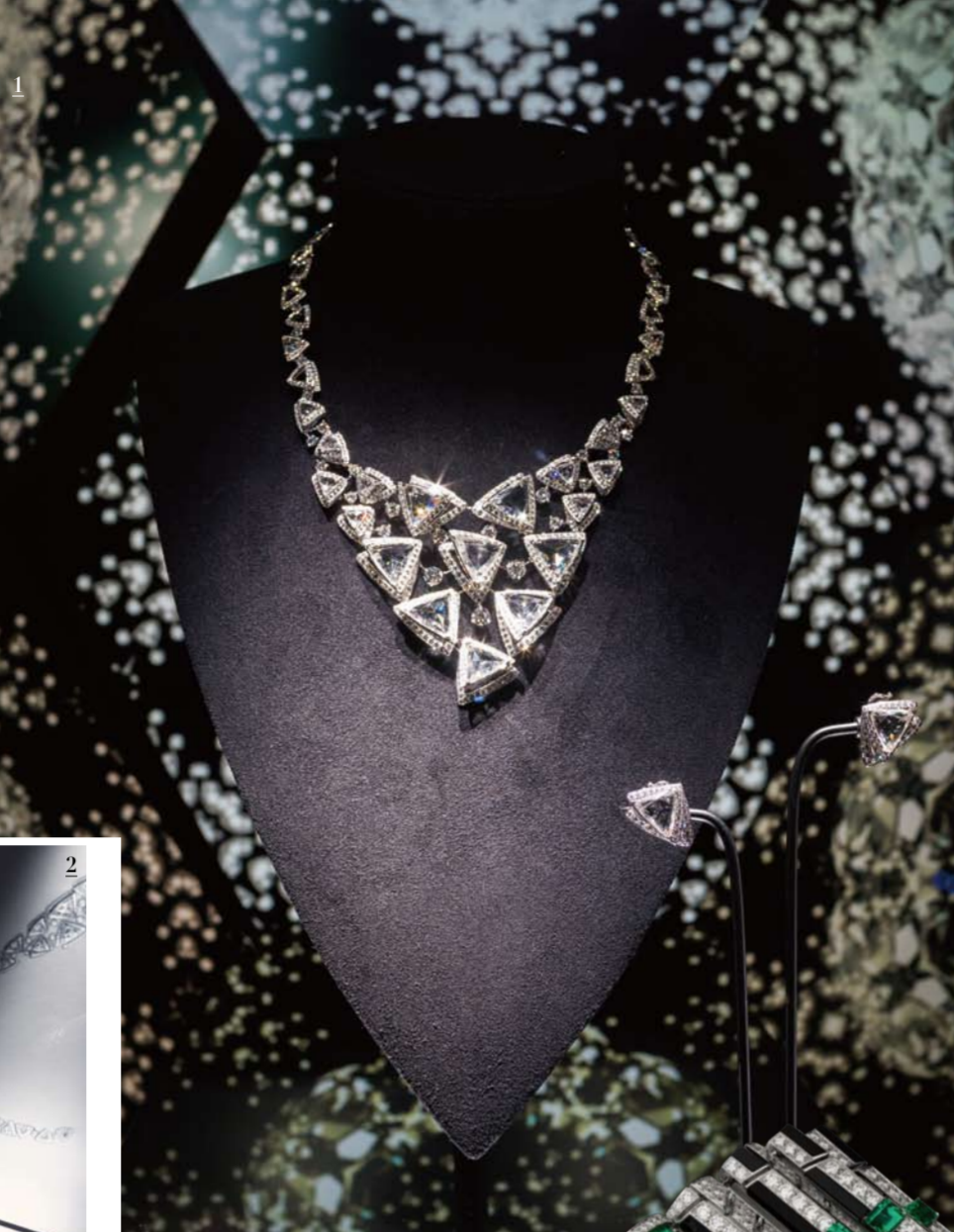
하이 주얼리를 보는 순간만큼은 마법에 걸린 듯 시간이 멈추곤 한다. 다이아몬드를 비롯한 아름다운 스톤이 장인의 손을 통해 하나의 매력적인 아트피스로 탄생되는 가나긴 여정. 까르띠에의 마지막 하이 주얼리 컬렉션(Magicien High Jewelry Collection)을 본 순간, 누구나 또 한 번 주얼리의 마법에 사로잡힐 것이다.

마법에 걸린 듯 환상적인 주얼리의 세계

지난 10월, 까르띠에는 새로운 하이 주얼리 컬렉션, 까르띠에 마지막과 까르띠에의 아카이브에서 영감을 받은 악셀 세일 피스를 도쿄 국립박물관 호케이칸(Hyokeikan) 갤러리에서 첫선을 보였다. 빛을 테마로 한, 까르띠에 하이 주얼리를 위한 특별한 공간은 들어선 순간 탄성을 자아낼 정도로 신비롭고 아름다웠다. 마치 우주에 들어와 수많은 별들과 조우한 느낌. 까르띠에 하이 주얼리의 마법이 이미 시작된 것이다. 까르띠에가 이날 선보인 마지막 컬렉션은 그 어떤 주얼리보다 생동감 넘치고 섬세한 디자인으로 눈길을 사로잡았다. 다이아몬드는 때론 섬세하게 배치되어 밀도 있는 볼륨감으로 존재감을 드러냈고, 빛의 굴절 현상으로 끊임없이 반사되는 정교한 광채는 빛의 아름다움을 실감하게 해주었다. 보는 순간 압도되는 주얼리의 스케일 또한 특별했는데, 마치 건축물과도 같은 주얼리는 과연 주얼리의 한계는 어디까지일지, 경이로움을 느끼게 할 정도였다. 1백년 이상 주얼리를 탐구해온 까르띠에의 역량을 고스란히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고나 할까. 마지막 하이 주얼리의 두 번째 마법은 바로 디자인. 환상적인 자체로 사선을 사로잡는 매력적인 실루엣은 까르띠에만의 독창적인 디자인을 통해 표현된다. 목걸이는 리듬감 있게 움직이며 열티 디자인으로 변신해 기존 주얼리를 뛰어넘는 상상력을 바로 눈앞에서 구현, 진정한 마법과도 같은 장인 정신과 세공 기술력을 보여 주었다. 또 다양한 컬러 스톤을 사용한 주얼리는 때론 에스닉하게, 때론 그래픽적으로 모던하고 유니크한 작품으로 선보였으며, 규칙적으로 평행한 형태와 비대칭적인 라인 등은 서로 조화를 이루며 주얼리 디자인의 독창성을 강조했다.

빛과 디자인의 마법, 까르띠에의 창의성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건 이 두 가지 외에도 하나의 마법, 바로 활기를 불어넣는 마법이다. 살아 숨 쉬는 듯한 생동감이 느껴지는 주얼리는 드러내지 않는 느낌으로 사선을 뚫 수 없게 만든다. 파충류, 정글의 동물, 꽃 모티프는 까르띠에의 에너지를 품고 관능적인 움직임, 감미로운 향기, 생기 넘치는 동작 등으로 보는 이들을 유혹한다. 루벨라이트, 다이아몬드, 에메랄드, 사파이어, 오팔 등의 보석은 꽃잎과 열매, 동물의 무늬와 날개 등으로 표현되어 생동감을 불어넣었다. 마지막(Magicien)이라는 단어로 표현된 까르띠에 하이 주얼리 컬렉션은 말 그대로 마법과도 같은 시간을 선사해 주었다. 끝없이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는 인간에게 극한의 아름다움을 선사하는 하이 주얼리의 세계. 특히 까르띠에의 주얼리를 볼 때마다 우리가 기대하는 주얼리 그 이상의 무한한 아름다움을 경험하곤 한다. 끊임없는 탐구, 하이 퀄리티 보석에 대한 열정, 시간을 초월하는 상상력의 발현, 그리고 무궁무진한 인간의 능력을 보여주는 장인 정신. 하이 주얼리와 까르띠에가 추구하는 독창성과 아름다움은 많은 것을 느끼고, 즐기며 때론 생각하게 한다. 경이로운 경험의 연속이었던 까르띠에 하이 주얼리의 세계. 진정한 럭셔리를 경험할 수 있는 마법 같은 시간이었다.

- 1 도쿄 국립박물관 내 빛의 마법을 표현한 공간에 전시된 루미넌스 네크리스(Luminance Necklace), MasahikoTakeda@Cartier.
- 2 까르띠에 매장의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다이아몬드 피스, 다이아몬드를 통해 빛의 회절과 유희를 표현한다. T. Deschamps & J. Claessens ©Cartier.
- 3 몰레타님, 옐로 골드, 총 14.65캐럿의 페어링 카보숑 컷 버마산 사파이어 2개, 스케어형 카보숑 컷 사파이어, 스케어형 에메랄드, 페어링 에메랄드,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로 이루어진 가네시 이어링(Ganeshe Earrings), Amelie Garreau ©Cartier.
- 4 화이트 골드, 40.57캐럿의 브라질산 에메랄드 1개, 총 4.07캐럿의 스케어형 에메랄드, 오프스,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로 만든 시네틱 브레이슬릿(Cinetique Bracelet), Vincent Wulverlyck ©Cartier.
- 5 화이트 골드, 총 20.08캐럿의 변형된 스케어형 다이아몬드 25개,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의 실트 네크리스(Sylphe Necklace), Vincent Wulverlyck ©Cartier.
- 6 몰레타님, 옐로 골드, 브리울레트 컷 옐로 다이아몬드,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로 만든 아킬레스 링(Achillee Ring), Vincent Wulverlyck ©Cartier.
- 7 나스탈리노 링(Nastali Ring), 옐로 골드 체이징, 플라타늄, 20.15캐럿의 조각된 타카이즈 1개, 카보숑 컷 루비,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로 이루어졌다. Vincent Wulverlyck ©Cartier.
- 8 가데나아 브로치(Gardenia Brooch), 핑크 골드, 조각된 핑크 킬레도니, 핑크 사파이어,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했다. Vincent Wulverlyck ©Cartier.



GIFT FOR HIM

장 폴 구드(Jean-Paul Goude)가 주안점은 유년 시절의 아프리카, 댄스, 비우하우스에 대한 애정을 담아, 브랜드의 신비한 언어 모티프에 화려한 색감과 움직임을 불어넣었다. (왼쪽 아래부터 시계 방향으로) 한층 이티스틱해진 로고 패치로 장식한 레드와 그린, 네이비, 화이트 남성용 피케 셔츠 모두 라코스테.



C'est Noël

2006년부터 매년 브랜드 시그니처 피케 폴로 셔츠를 독창적인 개성을 지닌 아티스트들과의 협업을 통해 공개하는 라코스테의 홀리데이 컬렉션 시리즈. 이번엔 샤벨과 토즈 등 여러 글로벌 패션 하우스와 함께 환상적인 작품 세계를 보여주고 있는, 세계적인 프랜차이즈 비주얼 아티스트 장 폴 구드와 손 잡았다. 그만의 풍부한 상상력과 위트 있는 그림 언어로 담아낸 2016 라코스테 홀리데이 컬렉션 시리즈.

GIFT FOR HER

크리스마스 트리를 연상시키는 두 마리 악어의 캐리커 레고 프린팅이 돋보인다. 브랜드 아이코닉인 그만의 유연한 시그로 재해석해 피케 셔츠는 아나리 보어 재킷, 기방 등 다양한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선보인다. 이 특별한 에디션은 라코스테 디자인 플래그십 스토어와 라코스테 가로수길 플래그십 스토어, 라코스테 여의도 IFC몰점, 라코스테 롯데백화점 분점에서만 만날 수 있다. 문의 1588-9619 에디터 이지연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레드 색상의 여성용 피케 셔츠와 여성용 화이트 컬러 피케 셔츠, 미니 사이즈의 래더 클러치, 래더 쇼퍼 백 모두 라코스테.



a passion for Gold

오랜 역사와 장인 정신, 희소성, 그 자체만으로도 델보는 이미 아트다. 단순히 가죽 액세서리를 만드는 것이 아닌, 예술 작품을 만든다는 브랜드 철학 아래, 르네 마그리트, 클로드 모네 등 한 시대를 풍미한 예술가들의 작품을 응용하며 델보만의 예술적 영토를 확장 중이다. 그리고 이번 크리스마스를 위해 보석만큼이나 빛나고 아름다운 컬렉션을 또 한 번 소개한다. 바로 영화 '키스(The Kiss)'의 화가로 잘 알려진 구스타프 클림트의 작품, 황금 시대에서 영감을 받아, 델보만의 유연한 해석을 발휘한 '푸시에르 데푸알(Poussière détoiles)' 컬렉션이 그것.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왼쪽부터) 다양한 골드 색상의 조각으로 완성한 별 모티프가 특징인 템페트 MM 백, 블랙 참키홀더, 빈찍이는 필로미노 메탈 가죽으로 제작한 앙페트 미니 백과 골드 참키홀더 모두 델보.

Brillant Mini Alligator & Charms Alligator

델보는 단순한 시즌 컬러가 아닌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특별한 색상의 가죽을 선보였다. 바로 '알리게이터 피유 도르(Alligator Feuille d'or)' 가죽이다. 붉은색으로 염색한 알리게이터 가죽 위에 금박 필름을 입힌 후, 델보만의 특별한 공정을 거쳐 완성한 것. 이 백은 외부만큼이나 아름다운 내부 디자인을 자랑한다. 가방 내부의 골드 메탈 컬러로 염색한 부드러운 고트 레더가 이 가방의 가치를 잘 말해줄 것이다.



필로미노 메탈 가죽의 브리앙 미니 백과 브리앙 참 모두 델보.

Signature Clutch

이탈리아 장인의 손에서 섬세한 공정을 거쳐 유광과 브러싱 처리된 옐로 골드와 로즈 골드, 그리고 루테튬과 팔라듐 메탈 조각들이 다각 면을 이루며 완성한 별 모티프는 푸시에르 데푸알 컬렉션의 고급스러움을 한층 높여준다. 백 하나만으로도 연말 파티 룩에 화려한 포인트 액세서리가 되어줄 것이다.



푸시에르 데푸알 컬렉션의 시그처 클러치 델보.

Charms Palomino

템페트 백의 앞면 보디와 플랩 부분, 참(charms) 키홀더에 화려하게 장식한 별 모티프는 수 개월간 실제 금세공 작업에 대한 연구를 통해 탄생시킨, 이번 컬렉션의 하이라이트라 할 수 있는 별 모티프 장식이다. 마치 퍼즐 조각처럼 세세하게 연결된 별 장식의 참 키홀더는 백 핸들에 매달려 움직일 때마다 아름답게 반짝이는 것이 특징.



푸시에르 데푸알 컬렉션의 신메트 MM 백과 골드 참 키홀더 모두 델보.

Tempete Micro Palomino

연금술사가 금을 연성하는 것처럼 델보의 장인들은 수십 단계를 거쳐 로즈 골드의 색상을 완벽하게 재현하는 필로미노 메탈(Palomino Metal) 가죽을 만들었다. 염색된 बै이지색 양가죽에 프레스 시스뮬을 통해 로즈 골드 필름을 붙여, 어느 각도에서 보아도 아름다운 컬러를 자아내는 특별한 골드 컬러를 완성해 골드에 대한 클림트의 열정을 표현했다. 문의 02-3449-5916 에디터 이지연



필로미노 메탈 가죽의 템페트 마이크로 백과 템페트 참 모두 델보.

Oil, again

겨울철 피부를 위한 한 방울의 보약, 페이스 오일. 번들거리고 끈적일 거라는 오일에 대한 편견이 사라진 지는 이미 오래다. 아직도 페이스 오일을 사용하기가 망설여지거나, 그 어떤 크림을 발라도 건조함이 해결되지 않는 피부가 고민이라면 여기, 성분과 텍스처, 효능을 모두 업그레이드한 멀티 페이스 오일에 주목할 것.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왼쪽부터 차례대로) **아베다 툴라사라™ 래디언트 올레이션 오일 & 페이스 샵 드라이 브러시** 균형을 찾아 나아가자라는 뜻을 지닌 이 특별한 오일은 건강하고 균형 잡힌 피부를 위한 이유르베디시 정원에서 영감을 받았다. 독특하게도 오일을 사용하기 전에 부드러운 툴라사라 페이스 드라이 브러시로 먼 얼굴을 쓸어 마사주해주는 방식인데, 피부 표면의 불필요한 각질과 불순물을 부드럽게 제거해 그 후에 함께 사용하는 오일의 효능을 높이는 것이 특징이다. 오일은 100% 자연 유래 성분을 활용한 제품으로, 향긋한 아로마 향과 함께 피부는 물론 심신까지 편안하게 해준다. 오일 50ml 6만원, 브러시 5만5천원. 문의 02-3440-2905

멜비타 아르간 오일 그 어떠한 장기를 얹어 100% 순수한 원료만 담은 오가닉 아르간 오일. 까다롭기로 유명한 유기농 인공인 에코서트와 코스메티오를 획득한 제품이다. 모로코의 청정 지역인 에사우리아 지역에서만 재배하는 귀한 아르간 열매를 사용했으며, 피부의 산화 작용을 방지하는 비타민 E와 오메가 6·9를 풍부하게 함유해 피부의 천연 유수분 보호막을 강화하고 피부를 오랫동안 촉촉하고 매끄럽게 유지시킨다. 125ml 8만2천원대. 문의 02-544-2505

비오셀 라쿠드 글로우 만능 항산화 오일이라는 애칭이 있는 제품으로 천연 오렌지향에서 연상할 수 있을 각종 비타민 성분과 비타민 E에 비해 효능이 1백 배 뛰어난 항산화 성분을 담은 멀티 오일이다. 이 오일의 핵심 성분인 강력한 항산화제 아스타잔틴과 비타민 A·E가 함유된 삼구 씨 오일, 비타민 C가 풍부한 오렌지 껍질 오일과 로즈힙 오일, 오메가 3 성분을 함유한 시계꽃 오일과 블랙 카운트 씨 오일 등 총 여덟 가지 자연 유래 성분 오일 성분을 담아 한 방울로 보습, 탄력, 광채 등 다양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30ml 4만9천원대. 문의 080-022-3332

클레드포 보네 래디언트 멀티 리페어 오일 얼굴은 물론 보디, 헤어까지 건조한 부위라면 어느 곳에나 사용해도 좋은 멀티 오일. 럭셔리한 사용감과 텍스처, 향이 단연 돋보인다. 감마글루탐산을 함유한 독자 오일 콤플렉스가 피부 장벽을 강화하고 24시간 동안 수분을 공급해 피부를 즉각적으로 유연하게 하고 주름을 개선한다. 신맛하고 가벼운 텍스처로 피부에 끈적임 없이 흡수되며, 피부 속은 풍부한 수분이 충전된 듯 촉촉하고 편안한 느낌이 든다. 이것이 이 오일의 강점이다. 75ml 18만원대. 문의 080-564-7700

캘랑 아베이 로얄 페이스 트리트먼트 오일 뛰어난 피부 재생 원료로 손꼽히는 진귀한 천연 원료인 위상 해니를 담은 페이스 오일. 농약이나 제초제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자연 보호지인 프랑스 위상 섬에 서식하는 꿀벌에게서 채취한 꿀만 사용해 최상의 품질을 자랑한다. 특히 다른 꿀에 비해 피부의 저항력과 탄력을 좌우하는 케라틴, 글리코겐의 주요 구성원인 아미노산이 풍부해 피부 탄력 개선에도 큰 효과를 발휘한다. 오일 포뮬러지만 끈적이지 않고 골차럼 진화시킨 놀랄도록 가볍게 피부에 스며드는 것이 특징이다. 50ml 21만원대. 문의 080-343-9500

라 메르 더 라누얼 오일 최첨단 안티에이징 효과를 전달하기 위해 라 메르의 대표 성분인 마린 보로스를 주성분으로 하는 워터층과 안티에이징 성분을 담은 오일층으로 이루어진 신개념 페이스 오일. 사용 전 부드럽게 흔들어야만 두 가지 성분이 활성화되면서 피부의 수분 지질구조와 유사한 형태의 마린 보로스 바늘 캡슐이 생성되는데, 이 캡슐이 피부에 닿는 즉시 빠르게 흡수되어 피부 속 깊숙이 유효 성분을 안전하게 전달한다. 피부 진정·보습 효과가 탁월하고, 뛰어난 재생 효과로 피부 손상을 케어하고 피부 장벽을 강화한다. 30ml 29만5천원대. 문의 02-3440-2593 에디터 권유민



제가 늘 원하던,
촉촉한 광채
피부를
만들어주죠.
-배우 이요원



피부 마스터들의 첫 번째 쿠션 컴팩트



NEW 시세이도 싱크로 스킨 글로우 쿠션 컴팩트

SHISEIDO
GINZA TOKYO

이요원 쿠션, 시세이도 싱크로 쿠션 컴팩트

여성들에게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된 쿠션. 하지만 여전히 내 피부에 꼭 맞는 인생 쿠션을 만나지 못했다면, 시세이도 싱크로 쿠션 컴팩트에 주목하자. 피부 마스터들이 꼽은 단 하나의 쿠션이자, 베이스 메이크업의 결정체로 불리는 이유가 궁금하다면 배우 이요원의 피부 표현을 눈여겨볼 것.



Cushion Look 1

이요원의 리얼 뷰티, 촉촉 쿠션 룩

평소 이요원이 즐기는 리얼 뷰티 룩은 메이크업을 하지 않은 듯 촉촉함이 그대로 살아나는 피부 표현에 입술에만 생기를 살짝 더하는 것.

MAKEUP TIP

시세이도 싱크로 스킨 글로우 쿠션 컴팩트 N2를 피부에 톡톡 두드린 후, 마끼아주 에센스 젤 루즈 RS318을 가볍게 발라주면 생기 있는 내추럴 뷰티 룩이 완성된다.



“

메이크업을 한 느낌이 들지 않는 쿠션, 제가 시세이도 싱크로 쿠션 컴팩트를 좋아하는 이유예요. 원래 내 피부인 것처럼 촉촉하면서도 완벽하게 밀착되거든요. ... 배우 이요원



“

드라마 촬영 때마다 가장 신경을 쓰는 부분은 매끈하고 화사한 피부 표현이죠. 보통은 여러 단계를 거치는데, 시세이도 싱크로 쿠션 컴팩트는 2~3번만 톡톡 두드려도 피부 결이 싹 메워져 피부가 훨씬 탱탱하고 깨끗해져요. 여기에 커버력까지, 말 그대로 완벽한 쿠션 컴팩트죠.

... 이요원 담당 makeup 아티스트 유민 (에브뉴 준오 실장)



Cushion Look 2

이요원의 드라마 뷰티, 완벽 쿠션 룩

최근 드라마 <불야성>에서 에지 넘치는 스타일을 선보이고 있는 이요원. 그녀의 드라마 속 뷰티 룩은 결점 없이 완벽한 베이스 makeup에서 시작된다.

MAKEUP TIP

시세이도 싱크로 스킨 글로우 쿠션 컴팩트 N2로 피부를 매끈하고 완벽하게 표현한다. 마끼야주 롱 스테이 아이라이너 N BK999로 눈매를 깔끔하게 잡아주고, 입술에는 루즈루즈 RD501 루비쿠퍼를 촉촉하게 발라 마무리한다.

Shiseido's First Cushion Compact

세상 모든 피부 마스터가 선택한 쿠션



완벽한 첫 번째 쿠션이자, 인생 쿠션!

NEW 싱크로 스킨 글로우 쿠션 컴팩트 SPF 23, PA++

140년간 피부만을 연구한 시세이도 마스터들이 완성시킨 첫 번째 쿠션이자, 모든 쿠션을 경험해 본 피부 마스터들이 인생 쿠션으로 꼽은 시세이도 싱크로 쿠션 컴팩트. 촉촉함은 기본이고, 커버력, 밀착력, 광채까지 하루 종일 완벽하게 유지해줄 뿐 아니라 피부 결점을 자연스럽게 커버해 메이크업 후에도 마치 내 피부인 듯 완벽한 피부 싱크로를 자랑한다.

Technology 어드밴스드 센싱 테크놀로지

하루 종일 외부 자극과 변화에 노출되어 있는 피부의 습도, 광택의 변화를 감지하여 내 피부가 최적의 상태가 되도록 스스로 조절해주는 기술. 내 피부인 듯 하루 종일 빛나는 아름다운 피부로 완성해준다.

beauty expert's say

“스킨케어 명가가 만든 쿠션답게 단순히 베이스를 더하는 쿠션이 아닌 내 피부와 하나가 되는 느낌이에요. 내 피부와 싱크로를 100%가 되는 쿠션!” ... 김현수 (뷰티 디렉터)

“지금까지의 쿠션은 시간이 지날수록 다크닝과 건조함이 느껴졌다면 시세이도 쿠션은 시간이 가도 그대로 촉촉하고 자연스러운 광채가 나요.” ... 자영 (제니하우스 청담힐 부원장)

“2-3번의 터치로 밀착력, 커버력 두 가지 모두를 만족시켜주죠. 피부에 완벽하게 밀착되어 화사함을 더해주는 인생 쿠션이에요.” ... 류현정 (프리랜서 메이크업 아티스트)



SPECIAL COUPON

본 쿠폰 소지 후, **NEW 싱크로 쿠션 컴팩트** (리필&케이스 / 55,000원) 구매 시



베스트 셀링 2종 + 시세이도 레드 미러 증정

행사 기간: 11월 24일(목) ~ 12월 31일(토)

* 타 기획세트 및 사은행사와 중복 증정 불가 / 한정수량 / 사은품 변경 가능

1 화사하게 빛나는 촉촉 피부

피부의 습도와 광택의 변화에 따라 최상의 피부 표현이 되도록 스스로 조절하는 어드밴스드 센싱 테크놀로지가 적용돼 화사하게 빛나고 촉촉한 피부 표현이 연출된다.

3 외부 자극으로부터 피부 보호

스킨케어 성분이 건조함, 산화, 자외선 노출 등의 외부적 요인으로부터 손상을 막아준다.

2 놀랍도록 부드러운 텍스처

부드럽고 매끈하게 발리는 텍스처가 피부에 부드럽게 녹아들어 메이크업할 때마다 피부가 건강하고 촉촉해진다.

4 스마트한 원터치 케이스

밀폐 용기가 외부 공기를 차단해 내용물을 안전하게 보호하며, 원터치 케이스로 편리함을 더했다.

miracle Essence

보습 크림조차 겹들게 하는 들뜬 피부, 땅김과 따끔거림, 얼룩덜룩 칙칙한 피부 다크닝에 축 치진 얼굴선까지, 지금 피부가 총체적 위기에 빠졌다면? 한국인 피부에 대한 오랜 연구와 독보적 기술력으로 노화에 대한 깊은 고민 끝에 완성한, 차앤박화장품의 프레스티지 브랜드 CNP Rx의 피부 전문가가 내린 솔루션은? 피부 근본부터 개선하는 데일리 케어를 소개한다.

피부 근본부터 개선해 맑고 건강한 피부로 PHA 에센스의 더블 스텝 케어

제품 기획부터 연구 개발까지 피부 전문가들이 직접 참여한 CNP Rx는 오랜 연구와 엄격한 테스트를 거쳐, 피부 턴오버를 돕고 탄력을 주는 PHA 콤플렉스를 완성했다. PHA 에센스라 불리는 '스킨 레주버네이팅 미라클 에센스'는 1단계에서 피부 턴오버에 도움을 주어 노폐 각질을 제거하고, 2단계에서 속부터 탄력을 채워 탄탄하고 투명한 피부로 가꿔준다. 기분 좋은 실키한 제형이 피부에 매끄럽게 발리면서 흡수되어, 속부터 촉촉하게 채워주는 느낌의 텍스처로, 맑고 매끈한 피부를 선사한다.

다재다능한 특별한 성분 PHA COMPLEX

PHA 콤플렉스는 글루코노락톤과 락토바이오닉산을 포함한 복합 성분으로 노폐 각질을 부드럽게 제거하고 피부를 탄탄하게 만들어 주는, CNP Rx만의 혁신적인 성분. 각질 관리 성분으로 잘 알려진 AHA보다 분자량이 커 피부에 천천히 편안하게 흡수되어 뛰어난 각질 케어 효능을 발휘하고, 수분을 강력하게 끌어당기는 성질로 보습 기능도 탁월하다. 또 피부를 보호하는 1차 방어 벽이자 건강한 피부의 첫 번째 조건인 피부 pH 밸런스를 관리에도 도움을 준다. 차앤박화장품의 프레스티지 브랜드 CNP Rx는 오프라인에서는 현대백화점 본점 1층, 롯데백화점 본점 지하 1층, 롯데백화점 잠실점 1층, 온라인에서는 더현대닷컴, 롯데닷컴, 롯데아이몰에서 만나볼 수 있다. 문의 080-023-7007



한겨울 피부 고민 체크리스트

- 관리해도 피부가 자주 힘을 잃고, 밝은 곳에서는 투명하지 않고 칙칙해 보여요.
- 광물여한 메이크업이 금세 동동 뜨고 피부 곳곳에 하얀 각질이 쉽게 눈에 띄어요.
- 피부가 탄력 없이 처지고 푸석해서 피곤해 보인다는 소리를 자주 들어요.

Solution : CNP 피부 전문가의 솔루션, PHA 에센스

PHA 에센스로 아침저녁 데일리 케어를 한다. 천천히 흡수되어 민감 피부에도 자극이 적은 PHA 콤플렉스가 각질 케어, 생기와 탄력 충전 케어를 한 번에 해결해, 촉촉하고 매끈하게 메이크업이 잘 맞는 화사한 피부 베이스로 되돌린다. 집중 케어가 필요한 날에는 PHA 에센스를 듬뿍 발라 수면 팩으로도 활용해보자. 다음 날 세안한 후 손끝에서 느껴지는 피부 변화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CNP Rx 스킨 레주버네이팅 미라클 에센스. 투명하고 매끈해진 피문결과 강화된 탄력으로 새롭게 깨어난 듯한 피부를 느낄 수 있는 PHA 에센스.

SPECIAL EVENT COUPON

<스타일 조선크림>와 CNP Rx가 함께하는 특별한 쿠폰 이벤트

본 쿠폰을 지참하고 CNP Rx 매장을 방문하는 독자에게 피부 근본을 바꿔 건강하게 빛나는 피부로 만들어주는 '스킨 레주버네이팅 미라클 에센스(10ml)'와 그린 프로폴리스의 항산화 에너지가 활력 있는 피부를 선사하는 '유스 익스트레머티 에너지 앰플(5ml)'을 드립니다.



◆ 증정품 스킨 레주버네이팅 미라클 에센스(10ml), 유스 익스트레머티 에너지 앰플(5ml)

◆ 기간 2016년 12월 31일(토)까지 ◆ 문의 080-023-7007(고객 상담실, 수신료 요금 부담) 홈페이지 www.cnp-rx.com

◆ 증정 매장 현대백화점 압구정 본점 1층(02-3438-6062), 롯데백화점 잠실점 1층(02-2143-1797), 롯데백화점 소공동 본점 지하 1층(02-772-3988)

